THE CHURCH FOR THE WEAK: CREATING SMALL GROUP MINISTRY OF HOSPITALITY IN KOREAN PROTESTANT CHURCH FOR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Kangmin Park

April 1 2017

This dissertation completed by

Kang Min Park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K. Samuel Lee, Chairperson

Namjoong Kim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17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mothers of infants and toddlers are experiencing indifference and discrimination within Korean churches.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experiences, I conducted interviews with 7 mothers. From these interviews, the women's experiences were categorized into four areas. In this paper, I argue from a feminist perspective that mothers of infants and toddlers need to be welcomed in their church communities. Furthermore, I envision the sense of hospitality that mothers of infants and toddlers need to experience, and I propose small groups for mothers as a ministerial intervention.

Key Words: Mothers of infants and toddlers, Feminist Theology, Hospitality Theology, Small Group

SUMMARY

Mothers of infants and toddlers suffer from discrimination and indifference within Korean churches, where a patriarchal culture is prevalent. Church communities must become aware of these mothers' difficulties and show hospitality toward them as marginalized persons, thus emulating Jesus. It is the church's calling to respect and show hospitality toward those who are marginalized.

I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to learn about women's experiences within a church context. Analyzing my interviews with 7 women, I found four categories, nine themes, and twenty-five topics. Through interpreting these result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I discovered that mothers of infants and toddlers continually experience difficulties with church life, phenomenological violence, and oppression by women who have internalized the patriarchal system. Also, due to a lack of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church meetings, which include meals and educational programs, mothers of infants and toddlers exist in the corners of churches and their difficulties are not understood.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s that mothers of infants and toddlers are "others" or "strangers" who must become the objects of the hospitality of churches and that churches must become aware of their difficulties. The church community, in order to show hospitality and to embrace them, must listen to the voices of mothers and secure for them spaces and rights. As a means of providing hospitality, I propose small groups and small group worship.

The originality of this study lies in undertaking qualitative research with mothers of infants and toddlers. Previous studies have rarely examined the church lives of these mothers. I hope this research can shed light on the experiences of mothers of infants and toddlers and drive phenomenological transformation within churches so that mothers of young children can be welcomed and respected in their churches.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 (Introduction)

A. 문제 제기

나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목양 하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했다. 아내가 출산을 하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 구조에 익숙해져 있는 나는 그들을 향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 교회에 다녀온 아내가 나에게 털어놓은 하소연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내는 힘들게 아이들을 준비시켜 교회 다녀오면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짜증이 난다는 것이었다. 교회가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 아내도 교회 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한다면 다른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교회생활은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아내의 푸념 섞인 한마디는 나로 하여금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했고,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한 '연민적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연민적 시선'이란 강남순의 정의에 의하면 동정심이나 이타주의가 아니라 '함께 고통함'(compassion 즉, suffer-with)을 의미하며 예수가 모든 소외된 자들을 향해 가졌던 연민의 시선을 말한다.[1]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보통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의 젊은 세대이다.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소외계층이 있지만 나는 단 한번도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소외된 자들임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들을 향한 연민의 시선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아

---

[1]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 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159.

픔과 어려움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들이 소외 받고 있으며 그들의 삶 또한 매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신의진은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엄마들이 겪는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데 그 대가로 돌아오는 건 보잘것없고, 쓸모 없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낙인뿐이다. 심지어는 그림자 취급까지 당하면서 그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간다. 그들이라고 인정받고 싶지 않고, 사랑 받고 싶지 않겠는가. 그들은 울음을 삼키며 아이를 본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를 잘 키우는 좋은 엄마가 되리라 마음먹는다. 좋은 엄마가 되면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줄 테니까.[2]

신의진의 말처럼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그림자 취급까지 당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존중 받지 못하고 소외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있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민적 시선으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한다. 강남순은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종교의 교리를 많이 알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민적 시선'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적인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이라고 강조한다.[3] 따라서, 한 몸으로 부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그들을 환대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연민적 시선으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 생각해 보기 전에 그들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2] 신의진, *나는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서울: 걷는나무, 2012), 6-7.

[3]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 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247-51.

B. 논지와 토론

구조적으로 남성중심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한국 사회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삶은 어떠한가? 강남순은 그들이 여전히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과 순종'을 강요하는 가부장 문화 속에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4] 대다수의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자녀 양육을 거의 홀로 감당하며 여러 가지 아픔과 억압적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두고 있는 한국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양육 부담감을 더 높게 인식하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의 책임이 동시에 주어져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유발된 스트레스는 심리적 및 신체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여성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5]

특별히 영유아들은 감각적 경험과 운동 활동을 통하여 사물을 이해하고, 외부 환경에 반응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성과 독립심이 발달함으로써 주변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학습을 시도하지만, 위험에 대한 경험이나 판단이 미숙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 긴장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6] 이 외에도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겪는 어려움은 남편과의 관계 문제, 직장이나 전공분야에 있어서의 경력 단절로 인한 불안함,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와 정서적 스트레스,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들을 겪는다.[7] 특별히

---

[4]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여성, 영성, 생명*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4), 301.

[5] 김나현, 이은주, 곽수영 and 박미라,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여성건강 간호학회지* vol. 19, no. 3 (September 2013): 188.

[6] Ibid., 189.

[7] 정은주 and 이미선,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 어려움과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부부의사 소통과 부부 역할 만족도의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8, no. 4 (2013): 486.

이러한 어려움들 중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한참 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위주의 노동시장구조 속의 뿌리 깊은 남,녀 차별로 말미암아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승진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8]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유리천장"[9]으로 인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좌절감을 경험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실제로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의사결정권이 있는 관리직의 경우에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정부투자기관 14 개소 과장급 이상 관리직의 여성비율은 1.7%, 전체 사업장의 평균여성 관리직 비율은 10.2%로 나타났다."[10]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어려움들을 사회가 조금씩 인식을 하면서 정부에서도 영유아 자녀들을 둔 엄마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 지원 정책으로 자녀 양육 지원을 최우선으로 꼽고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11]

그렇다면 이렇게 억압받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놀라운 변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해방적 기능"[12]을 담당해야 하는 교회는 이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에베소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을

---

[8] 송하식 and 김용순, "유리천장에 대한 지각과 이직의도-통제위치의 조절효과-," *산업과 경제* vol.22, no. 1 (August 2009): 254.

[9] 유리천장은 1986 년 Wall Street Journal 의 기업여성에 대한 특별호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데서 유래되었다. 유리 천장은 기업내에 존재하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여성들로 하여금 특정한 지위로 승진하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우리와 같은 장애물을 의미한다. Ibid., 254-55.

[10] Ibid., 254.

[11] 정은주 and 이미선,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 어려움과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부부의사 소통과 부부 역할 만족도의 매개효과," 486.

[12]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95-96.

위임 받은 공동체이다.[13] 칼 바르트(K. Barth)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지상적이며 역사적 실존형태"이다.[14]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시대의 고민을 끌어안고, 모든 억압과 차별을 극복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인해 세워진 한국 기독교는 양반과 노비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실현되는 공동체였다.[15] 다시 말해, 초기 한국 교회에는 '영적인 평등성을 사회, 계층의 평등'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었다.[16]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제도화 되면서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잃어 버리고 세습과 화려한 교회 건물로 인한 귀족 교회 논란, 목회자들의 도덕성 문제와 여성 차별과 비하 문제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교회가 선도적으로 한국사회에 바람직한 모습들을 역할모델로 보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야 하는데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별히 유교적 권위주의가 한국 교회에 공공연하게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여성 차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 실례가 바로 교회의 중요한 결정기구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각 교단 별로 2015년도 총회의 여성 총대 숫자를 조사하였는데 "개혁연대에 따르면 2015년도 기장총회는 총대 720명 중에 여성 총대는 58명이었고, 예장통합총회는 1500명의 총대 중 16명만이 여성 총대였다.

[13] 에베소서 4:15-16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리라."

[14] K.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IV,1*(Zürich, 1993), 738, quoted in 김형민, "공적 교회의 윤리적 책임," *기독교사회윤리* vol. 26, (2013): 92.

[15]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여성, 영성, 생명* , 279.

[16] Ibid.

예장합동총회와 예장 고신 총회는 그나마 여성 총대는 한 명도 없었다."[17]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해 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데 오히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일반사회보다 더 가부장적으로 여성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 받고 있는 여성들은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다. 그들은 여성이며, 나이가 어리고, 가부장적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정이라는 테두리안에 한정되어진 자신의 이름과 정체를 상실한 "엄마"라는 명칭의 주변인이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배려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원이란 근거리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 공감, 이해, 격려와 같은 정서적 지원, 경제적 도움이나 집안일을 돕는 도구적 지원,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정보적 지원, 그리고 여행을 함께 가거나 외식을 함께하는 사교적 지원 등을 말한다.[18] 교회가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인식함으로써 그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지원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지원을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큰 힘을 얻게 된다. 실제로 여러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을 수록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안감과 무력감을 덜 느끼고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그러나 안타

[17] 이승규, "교단 총회 여성 참여 봉쇄등 아쉬움 남아," *CBS 노컷뉴스*, October 6, 2015. http://www.nocutnews.co.kr/news/4484482#csidx16D3Nv (Accessed June. 21, 2016).

[18] 연은모, 윤해옥 and 최효식,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지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특성의 종단 매개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회* vol. 98, no. May (2016): 3.

[19] Ibid.

까운 사실은 교회가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향한 연민적 시선을 갖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교회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고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와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와 분야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뜻하며, 그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인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돌아본다면 그들을 위해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를들어, 공적 예배시간에 자모실의 상황을 살펴 보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교회에 오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예배도 매우 힘들게 드리고 있다. 교회의 공동체적 지원이 매우 형식적이고 일방적이다 보니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는 아직 유치부에 혼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자녀들이다. 그래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거의 대부분 공적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자모실 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많은 교회들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해 자모실을 두고 있지만 정작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독립되고 구별된 소외의 공간만을 제공할 뿐이다. 그곳에서 영유아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분주하고, 시끄럽고, 집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이다. 이로 인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예배를 통한 은혜의 경험에서 소외되고 있다. 영유아 자녀들의 외출을 위해 밥 먹이고, 씻기고, 옷 입혀서 힘들게 교회까지 왔지만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돌

아오게 되는 날이 많다. 이렇게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의 공백기까지 겹쳐짐으로써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소외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해 교회는 연민적 시선을 가지고 구체적인 도움의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따라서 나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층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들의 경험을 분석했다. 심층 면담을 통해 분석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경험을 페미니스트 신학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억압을 교회가 연민적 시선으로 함께 고통하며 위로하기 위해 환대신학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환대의 한 방편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환대신학적 소그룹이 이들에게 왜 필요한지 그 이유와 중요성을 논증하였다. 더불어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여 엄마로서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그 목회적 대안으로 환대신학적 소그룹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Chapter II

질적 연구 방법 및 절차

A. 연구 참여자

나는 질적 연구를 위해 서울에 위치한 A 교회에 출석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7 명의 엄마들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는 동의서(부록 A 참고)를 통해 얻었는데, 이 연구와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동의서에는 학교에 대한 정보와 담당교수의 연락처를 공개함으로써 의문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학교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비밀보장과 함께 연구 참여자들에 대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참여자에 대해 익명성을 추구하였고, 참여자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신상기록을 제한적으로 기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 면담할 때는 그 면담 내용을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녹음을 하지만 연구가 종료되면 파기할 것을 약속하였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면담 참여시 참여자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 할 수 있으며, 어느 때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도록 설명하였다. 만약 연구참여 철회를 원할 경우 참여자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Claremont School of Theology)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면담장소는 연구자 개인 사무실로 정하였으며 면담시간은 연구 참여자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미리 약속을 잡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윤리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 ‘기관 윤리

심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승인번호:2016-01)을 얻어 연구 절차를 밟아 나갔다.

아래의 〈표 1〉은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이들은 20 대 후반부터 40 대 초반까지의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다. 이들의 신앙생활 경력은 초신자(3 년)부터 길게는 30 년 넘게 신앙생활을 한 모태신앙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2 세 영아부터 7 세 유아까지 다양한 연령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엄마들이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직분	나이	자녀	신앙경력
연구참여자 A	집사	30 대	7 세 딸, 2 세 아들	모태신앙
연구참여자 B	성도	20 대	2 세 아들	5 년
연구참여자 C	집사	30 대	7 세 딸, 4 세 아들, 2 세 딸	3 년
연구참여자 D	집사	40 대	2 세 아들	4 년
연구참여자 E	성도	30 대	7 세 아들, 5 세 딸, 2 세 아들	모태신앙
연구참여자 F	집사	30 대	7 세 아들, 4 세 딸	모태신앙
연구참여자 G	집사	30 대	2 세 딸	모태신앙

B. 연구 방법

나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심층 면담 방법을 선택 하였다. 심층 면담은 질적 연구 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여러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 서근원에 의하면 질적 연구는 나의 경험과 견해를 내려놓음으로

기존의 자신의 관점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20] 김영천은 질적 연구란 연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점을 내려놓고 "내부자적 시각"을 가지고 연구대상자들의 삶의 정황과 경험들을 기술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정의 한다.[21] 김영천에 따르면 질적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사람들(토속인, 이방인, 타인, 연구 참여자 등)이 자신의 사회세계와 행위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행위 하는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의미란 그들이 갖게 되는 형태의 경험과 감정, 인지, 지각, 태도, 상징 등을 포괄하는 넓은 맥락에서의 의미를 말한다.[22]

그러므로 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본질적인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은 현상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상학적 연구는 질적 연구의 주요 연구 전통 중 하나이다.[23] 김영천에 따르면 현상학적 질적 연구란 "인간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 체험을 바로 그 체험이게 만드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이를 통해 체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24] 다시 말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인간의 체험을 살피고 그 체험 속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요소나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교회 안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겪는 체험을 연구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인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나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 심층 면담 방법을 사용하였다. 교회 안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

[20] 서근원,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시대의 삶과 문화와 교육, 그리고 질적연구* (파주: 교육 과학사, 2013), 345.

[21]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Bricoleur*, 2 판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116.

[22] Ibid.

[23]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89.

[24] Ibid., 90.

엄마들이 겪는 체험을 현상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을 심층 면담하는 것이다. 심층 면담이란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일대일 면담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교회 안에서의 체험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내부자적 입장에서 공감을 통해 파악하는 연구방법이다.[25] 더불어서 면담 기법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탐구하기 위해서 비구조화된 면담을 하였다. 김영천에 의하면 비구조화된 면담은 "면담자가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하여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개방적으로 피면담자와 하는 면담을 말한다."[2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한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자녀 출산 전 교회 생활은 어떠셨나요?
2. 자녀 출산 후 본인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에 어떠한 변화가 있나요?
3. 자녀 출산 후 가정과 교회에서 느끼는 어려운 문제들은 무엇인가요?
4. 자녀 출산과 양육의 경험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5.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로서 교회 공동체 안의 대인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6.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로서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7. 영유아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는 자모실 에서의 경험은 어떠하셨습니까?
8.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로서 교회에 바라는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9. 영유아 자녀와 함께 소그룹 예배에 참여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10.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로서 소그룹 예배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

[25]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V: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562.
[26]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Bricoleur*, 2 판, 328.

C. 연구절차

나는 이 연구를 위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콜라이지(Paul F.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따랐다. 김미진이 인용하는 것처럼 콜라이지는 "인간을 다루는 심리학은 자연과학의 방법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인간과학에서는 생활세계에서 일상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27]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콜라이지 현상학적 분석 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어구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절차를 따른다.[28] 이러한 콜라이지 현상학적 분석 방법은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광범위하게 도출해 내는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 그러므로 나는 콜라이지의 현상학적 방법을 통하여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서 경험되는 현상을 연구하며, 이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광범위한 차원에서 통합 분석하여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콜라이지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29]

1. 면담 시 녹음했던 것들을 옮겨 적고 반복적으로 읽는다.
2.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끌어낸다.
3. 명확하게 밝힌 의미 있는 주제들을 주제, 주제군, 범주로 조직한다.

---

[27] 김미진, "노인자살 원인으로서의 소외에 대한 분석과 소외 극복을 위한 기독교 상담,"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vol. 25, no. 3 (June 2014): 23.

[28] Ibid., 26.

[29]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107.

4. 조사된 현상적 주제들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기술한다.
5. 분석과정을 통해 나온 본질적인 구조가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유효성을 확인한다.

나는 이러한 콜라이지 분석 방법을 따라 연구 대상자들의 면담을 분석하되 연구 대상자들을 차례대로 면담하면서 계속적으로 면담 질문과 내용을 분석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따랐다. 면담을 차례대로 분석 수정해 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첫 번째 면담자를 면담한다.
2. 면담 시 대화 내용을 기록한 기록지를 집중 분석한다. (콜라이지 분석 절차)
3. 면담 과정과 질문에 대해서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분석한다.
4. 둘째 면담 질문과 과정을 첫 번째 면담 분석에 따라 수정한다.
5. 둘째 면담을 하고 위의 과정을 따라 분석 수정한다.
6. 셋째 면담을 하고 위의 과정을 따라 분석 수정한다.
7. 이후에 모든 면담도 이와 같은 분석 수정 과정을 따른다.

또한 나는 연구자로서 나 자신의 편견을 버리는 '판단중지'(Epoche)를 하였다. 판단중지란 "현상에 관한 편견을 인지하고 제쳐둔 다음, 현상을 새롭게 인식하려는 과정으로 현상학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30] 이를 위하여 판단중지 목록을 만들어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향한 편견을 버리고 객관성을 위한 중립을 가지려고 하였다. 다시

---

[30] Nigel King and Christine Horrocks,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에서의 인터뷰*, trans. 김미영, 김윤주, 김려화, 박금주 and 지은주 (서울: 현문사, 2013), 253-54.

말해, 우리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고정 관념을 깨고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주요한 판단중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분명한 정체성과 자녀를 향한 사명감이 충만할 것이다.
2.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다.
3.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자녀로 인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할 것이다.
4.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자녀를 위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것이다.
5.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교회 안에서 배려 받고, 환영 받고 있을 것이다.
6.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그들을 위해 마련된 예배 공간(자모실)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을 것이다.
7.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자녀들 때문에 소그룹 예배가 힘이 들 것이다.

D. 연구 결과 및 해석

나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얻어진 일련의 자료들을 콜라이지(Colaizzi) 분석 과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는 참여자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로서 교회 안에서의 경험에 관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선별하여 25개의 주제와 9개의 주제군, 4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첫째 범주(A)는 "인식론적 폭력"으로 2개의 주제 군과 8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둘째 범주(B)는 "가부장제적인 억압"으로써 2개의 주제 군, 6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셋째 범주(C)는 "소외감"으로 3개의 주제 군과 7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넷째 범주(D)는 "소그룹 경험"으로 2개의 주제 군과 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 자료 분석을 아래의 표에서 요약하였다.

〈표 2〉 자료 분석 결과: 범주, 주제군 및 주제

범주	주제군	주제
A. 인식론적 폭력	1. 자모실의 구조적인 문제점	1) 교회에서 자모실 만들 때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의견을 전혀 구하지 않았어요. 2) 자모실의 시설물들 중에 엄마들에게는 불편하고 아이들에는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3) 자모실 관리가 잘 안되어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아 엄마들은 자모실 수유 용품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4) 자모실에 엄마들이 꼭 필요로 하는 용품들을 구비하지 않아요.
	2. 자모실 예배의 현주소	1) 자모실 에서 설교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2) 영유아 부모를 둔 엄마들은 자모실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정보 공유하러 오는 것 같아요. 3) 아이들은 자모실 에서 실내 놀이터에 놀러 온 것처럼 뛰어 다니지만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4) 자모실 에서 예배 드리는 것 보다 오히려 아이를 업고 예배당 바깥 현관에서 TV를 보며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더 집중이 잘돼요.
B.	1. 교회 봉사에	1) 여전도회에서 주관하는 식당봉사가 힘들고

가부장제 적인 억압	대한 억압	부담되요. 2) 아이들 때문에 교구 성도님들의 애경사에 참여하지 못할 때 눈치가 보이고 죄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3) 교회 어르신들로부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애들 업고 교회 봉사 다하며 살았다고 핀잔을 들었어요.
	2. 자녀 양육에 대한 편견	1) 훈련 프로그램에 눈치 보며 참여했는데 아이가 떠드는 바람에 아이를 단속하지 못한다며 혼났어요. 2)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자녀들을 키운다는 소리를 들어요. 3) 교회 어르신들께서 우리는 지금도 손자들 양육하면서도 교회 봉사하고 있다고 책망하세요.
C. 소외감	1. 공동체 식사에서의 소외감	1) 교회 식당에는 아이들을 위한 의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기가 불편해요. 2) 교회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 반찬에는 아이들을 위한 메뉴가 없어요.
	2. 장소 사용에 있어서의 소외감	1) 교회 건물 안에 넉넉한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 소그룹 모임을 할 장소가 없어요. 2) 교회 안에 아이들과 함께 편히 쉬고 교제할 공간이

		없어요.
	3.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소외감	1) 성경 공부나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요일과 시간대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아 듣지 못해요. 2) 차일드 케어(아이 돌보미 서비스)가 없어서 양육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3) 교회 체육대회 같은 친교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D. 소그룹 경험	1. 소그룹 예배의 장점	1) 소그룹 모임 때 주일날 잘 듣지 못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목자를 통해 듣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아요. 2) 소그룹을 통해 인간관계가 형성되었고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 받고 있어요.
	2. 현 소그룹 예배의 한계	1) 소그룹 모임 때도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면서 참여해야 해서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2) 소그룹 모임을 통해 삶을 나누긴 하지만 모든 가식을 벗고 있는 그대로 나누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4가지 범주들을 페미니스트 신학의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왜냐하면 강남순이 주장하는 것처럼 페미니스트 신학의 목표는 모든 억압과

차별을 극복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31] 따라서 페미니스트 신학의 관점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경험 속에 어떠한 억압과 차별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지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페미니스트 신학은 무엇인가? 많은 목회자들이 페미니스트 신학에 대해 오해를 한다. 페미니스트 신학을 편협한 여성 우월주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학 정도로 생각을 하거나 특정한 사람들만 관심하는 '특수 신학'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32] 이러한 오해에 대해 강남순은 페미니스트 신학이 모든 차별과 억압의 사슬을 끊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강력한 일치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페미니스트'라는 용어가 여성/남성이라는 생물학적 성과 우선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다양한 개념규정과 해석이 있지만, '페미니스트'란 가부장제적 성차별주의에 근거하여 구성된 가치관, 제도, 구조, 의식 등에 대하여 근원적인 비판을 하면서, 가부장제가 단순히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와 억압의 차원뿐만 아니라 강자-약자, 제 1세계-제3세계, 백인-비백인, 부자-가난한자 본토인-이방, 이성애자-동성애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자연 등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관계들 속에 지배와 종속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지속하게 하는 위계적 지배논리의 근거가 되어 왔다는 인식을 하는 이들이다. 따라서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인종, 성별, 계층의 차이를 넘어서는 모든 존재들의 평등이며, 현대에서 '페미니스트'란 이러한 급진적 평등주의적인 정치적 진술을 드러내는 용어라고 나는 본다. 즉 다양한 근거들에 의하여 '중심부'에서 배제되어온 '주변부인'들의 인권과 평등, 그리고 정의의 문제에 관심한다는 정치적 진술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잃어 버린 것들과 깨진 평등의 관계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희년의 하나님 나라 복음[33]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페미니스트 신학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신학의 관점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를 나는 다음과 같이

[31]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여성, 영성, 생명*, 32.

[32] Ibid., 28.

[33] 누가복음 4:16-30

해석하였다.

1. 인식론적 폭력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첫 번째 범주(표 2: A)는 "인식론적 폭력(epistemic violence)"이다. 인식론적 폭력이란 기득권자들이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도 없이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이러한 시도를 스피박은 인식론적 폭력이라고 부른다.[34] 다시 말해, 권력을 소유한 자들이 약자들의 관점을 무시하고 매우 편협하고, 기득권 중심적인 관점을 강요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 참여자 A와 B 그리고 D는 그들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 A: *4년전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지만 자모실은 불편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모실 구조가 과거 한옥 집 마루처럼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아이들이 자주 떨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모실에 가면 아이 다칠까 봐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자모실이 4군데 있는데 딱 한 곳만 수유실이 있어요. 그것도 커튼으로 수유실 공간을 만들어 놓아서 아이들이 갑자기 커튼을 걷어 버리면 민망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유실이 독립된 공간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35]

> B: *자모실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세면대의 높이가 너무 낮아서 아이들 기저귀 갈고 씻길 때 너무 불편해요. 자모실을 건축할 때 우리 같은 아기 엄마들에게 자문을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기저기 갈 수 있는 침대나 테이블도 필요하고, 특히 이유식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유식을 데워 먹일 전자레인지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교회 내에 전자레인지가 있는 곳은 카페에만 유일하게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엄마들만 1층 카페로 가서 이유식을 데워와요. 자모실에 전자레인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34] Gayatri Chakravorty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s.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London: Macmillian, 1988), 76, quoted in 최순양, "트린 민하(Trinh T. Minh-ha)와 스피박(Gayatry Chakravorty Spivak)을 통해 본 탈식민지적 여성이해," *여성신학논집*, vol. 9, (2010): 47.

[35] 연구 참여자의 면담내용은 이탤릭체(기울일 꼴)로 기술하였다.

D: *키즈 카페 같은 곳에 가면 바닥이 폭신 폭신하고 아이들이 넘어져도 안 다치게끔 설비를 해 놓는데 교회 자모실은 바닥이 너무 미끄럽고 딱딱해요. 특히 날카로운 모서리 들도 많아서 자모실에서는 언제나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영유아 자녀들을 둔 엄마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도 정작 엄마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엄마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 결정권자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관점대로 그 공간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인식론적인 폭력이 된다. 이러한 인식론적 폭력은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돕지 못하고 자기 편견에 갇힌 해결책만 제시할 뿐이다.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은 "서벌턴(Subaltern)[36]이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기득권자가 약자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침묵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37] 정윤길에 의하면 "서벌턴이라는 것은 원래 프롤레타리아와 같이 계급적인 면에서 종속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노동자 중심의 주체 개념을 수정 확장한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표현이다."[38] 스피박은 이러한 서벌턴 개념을 권력 구조 속에서 이해함으로써 권력 구조의 중심부에 들어오지 못하고 배제되는 주변부적인 부류의 사람들을 서벌턴이라고 부른다.[39] 실제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서벌턴처럼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권력 구조에서 배제된 채 주변부적인 존재로

---

[36] '21 세기 정치학 대사전'에서 'Subaltern'의 외래어 표기를 '서벌턴'으로 사용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8159&cid=42140&categoryId=42140 (Accessed January. 17, 2017).

[37] Chakravorty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69.; quoted in 위의 책, 47.

[38] 정윤길, "스피박의 서발턴 이론과 소통의 문제," *인문과학연구*, vol. 37, (September 2011), 222.

[39] Ibid., 223.

존재하고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는 자신들의 의견이 배제 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유아 자녀와 함께 불편함 없이 예배 드릴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영유자녀를 둔 엄마들이 겪는 인식론적 폭력의 단적인 예이다. 교회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문제에 대하여 연민적 시선을 갖지 못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침묵 시킴으로써 인식론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순은 위계적 권력관계가 여전히 그 중심적 작동기제로 적용되는 환대는 환대의 의미를 왜곡한다고 강조하였다.[40]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배려의 상징인 자모실이 그들에게는 환대가 아니라 폭력일 수 있다는 것이다. 폭력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육체적인 것만 폭력이 아니라 지배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통하여 정당화된 강제적 힘을 사용하는 것도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41] 이러한 인식론적 폭력아래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불편하고 시끄러운 그 독립된 공간에서 공동체와의 단절을 경험한다. 그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공적인 차원의 관심과 도움은 받지 못하고 모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내하며 개인적 차원의 자모실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인식론적 폭력아래에서 자모실로 모여든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그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종교생활을 매 주 하고 있다. 참여자 A와 F 그리고 G는 자신들의 자모실에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 A: *자모실에 들어가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친교실에 들어온 것처럼 앉아 있으면 옆에 있는 엄마들이 말을 걸어요.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을 딱 자를 수도 없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에요. 자모실의 환경이*

[40]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교회와 목회* vol. 690, no. 6 (August 2014): 238.

[41]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여성, 영성, 생명* , 215-16.

개선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F: *자모실에서는 말씀을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거의 놀러 오는 분위기 입니다. 아이들은 막 뛰어 다니고 엄마들은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어요. 심지어는 목회자 아내들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어서 울면서 자모실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저도 자모실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다른 엄마들과 수다를 떨고 있어요. 많이 반성하고 있지만 자모실에 만 가면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엄마들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G: *자모실에서는 목사님 말씀이 전혀 안 들려요. 목사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내는 소음과 엄마들 대화 소리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아이를 업고 복도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참여자 A와 F 그리고 G의 고백처럼 자모실은 예배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터요 엄마들에게는 정보를 공유하고 수다를 떠는 장소가 되어 버렸다. 참여자 A와 F 그리고 G 외에도 연구에 참여한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은 '자모실에서는 예배에 집중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일날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참석 안 하면 안되니까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지만 자모실에서의 시간은 아이들과 씨름하는 육아의 연장선일 뿐 무엇인가 다른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예배 참석 이후에 육체적으로 지치고 죄책감만 느끼게 된다. 이렇게 인식론적 폭력아래 만들어진 자모실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과 수치심 마저 느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가부장제적인 억압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두 번째 범주(표 2: B)는 가부장제적인 억압이다. 한국 교회 안에 뿌리 깊이 박힌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이러한 가부장제적인 억압이 차별을 내면화한 여성들로 부터 주어진다는 것이다. 차별을 내면화 했다는 것은 지배자가 조작하고 창출해 낸 신념

체계나 가치 구조 등을 피지배자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발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억압적 상황을 정당화하고 받아들인 상태를 말한다.[42] 강남순은 이렇게 차별을 내면화한 여성들이 가부장제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가부장제를 유지 강화하는 공모자라고 말한다.[43] 실제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오랜 세월 가부장제적인 차별을 내면화 한 여성들로부터 교회 일에 비협조적이고 순종적이지 않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들로부터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식당봉사, 교회 행사 참여 등 육체적 봉사를 강요당한다. 참여자 E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였다:

> E: *목자(구역장) 권사님은 아이가 있는 저희들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회 애경사에 참여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시고, 새벽기도회 특송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눈치를 주셨어요. 우리 젊었을 때는 애들 업고 교회 봉사 다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이해 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린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지 않으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참여자 E의 고백처럼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교회 안에서 이미 차별을 내면화한 여성들로부터 차별과 정죄, 억압을 경험하고 있다. 그들이 요구 받고 있는 일들은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교회에서 해왔던 일들이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여자들에게 부여하는 일은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는 리더의 일이 아니라 식당에서 일하거나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강남순은 그녀의 책 *'페미니즘과 기독교'*에서 한국교회내의 여성의 역할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실을 밝혔다:

> 첫째,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여성의 일로 부과되어온 '청소/음식 만들기'가 여전히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여성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기만족을 느끼고 있지 못한다는

[42] Ibid., 294–97.

[43] Ibid., 293.

사실이다.[44]

교회내의 많은 여성들이 헌신이라는 명목 하에 자기만족을 얻지 못한 채 육체적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여성들의 역할이 여성에 의해 강요되어 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들의 역할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 버린다. 더욱이 요즘은 '할빠, 할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조부모 양육시대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아이는 누가 돌봐주는가의 질문에 친정엄마 47%, 시어머니 29%,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19%, 베이비시터 9%로 나타났다."[45] 이렇게 조부모 양육자가 많아지다 보니 실제로 교회 안에 아이들을 함께 데려와 봉사에 참여하는 조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손자녀를 양육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의 불만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로 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불만은 '나이든 우리들도 손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봉사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왜 못하느냐'라는 것이다. 참여자 A 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 A: *여전도회 총회장님이 누구시냐에 따라 식당봉사를 배려 받을 때도 있고 배려 받지 못하고 와서 봉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손자, 손녀를 돌보시는 할머니들이 우리도 와서 봉사하는데 젊은 사람들을 왜 빼주냐며 불평하셔서 배려 받기가 눈치 보여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봉사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참여자 A 의 고백처럼, 영유아 자녀들을 둔 엄마들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하지 못함에서 오는 부담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다. 마치 조르지오 아감벤(Giorgio

---

[44]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162.

[45] 조계표, "맞벌이 부부의 조부모 자녀양육의 문제점과 제언," *한국영유아보육학회* vol. 84, (January 2014): 284.

Agamben)이 “그것(아우슈비츠)은 사실 한 번도 중단된 적 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항상 이미 반복되고 있다”[46]고 주장하는 것처럼 가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 교회 안에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젊다는 이유로 교회 안의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판하는 성도들은 스스로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다. 종교적인 삶은 사랑과 연대 그리고 환대를 실천하는 삶이어야 한다.[47]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지만 종교적이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 받지 못한 채 육체적 봉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며 수치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소외감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세 번째 범주(표 2: C)는 ‘소외감’이다.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교회 안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소외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소외되어 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았지만 소외된 공간, 비좁고 시끄러운 공간에서 따로 예배 드려야 하며, 예배 후에도 누군가로부터 환대를 받거나 지체들과 깊은 교제를 하지도 못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여자 E 와 F 는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경험을 고백하였다:

[46] 김진애, “조르지오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수치심 –특수한 시대권력에 따른 분석과 일상생활에서의 고찰 가능성,” *철학연구* vol. 51, (2015): 144.

[47]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 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160.

E: 현실적으로 교회의 공간이 협소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데려온 엄마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편하게 쉬고 엄마들도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어요. 자모실에서라도 쉬고 싶은데 금방 목장 모임 한다고 나가라고 하니 정말 교회 안에 있을 곳이 없어요.

F: 주일날 예배후에 목장 모임을 소그룹 방에서 모였어요. 소그룹 방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라 아이들과 함께 모이기 좋은 장소였어요. 그런데 다음세대라고 존중받는 청년부가 그 장소를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빼앗겼어요. 그 이후로는 교회식당에서 모이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하기도 힘들고 특히, 아이들을 통제하기도 어려워서 목장 모임이 많이 약해졌어요.

참여자 F 와 E 의 고백처럼,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교회에서 자신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한 장소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아이들과 함께 있을 곳이 없다 보니 쓸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소사용의 문제는 단순히 교회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장소 사용에 있어서의 권력구조를 보아야 한다. 교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현재 시무하는 교회를 예로 들면, 은퇴 장로님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쉴 공간이 제공되고 있으며, 시무 장로님들은 당회실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교회에 어떠한 객관적인 권력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공간의 분리와 차별이 있음은 분명하다. 교회가 남성 위주의 질서에 익숙해 있으며 가부장제적인 구조 속에서 장소를 구분하고 배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교회의 권력 구조 속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다수 교회들은 예배 후에 점심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그러한 식사 자리에도 참여하기가 어렵다. 점심 메뉴가 거의 대부분 어른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거니와 참여한다고

해도 복잡한 식당에서 어린 자녀를 동반하여 식사하기란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참여자 C 는 영유아 자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였다:

> C: *주일날 예배 후에 식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는 거의 하지 못해요. 예배 후에 아이들 데리고 힘들게 식당으로 올라가면 줄이 너무 길어서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막상 아이들과 식사를 하려면 한 두 가지 불편 한 것이 아니에요. 우선 아이들을 앉힐 유아 전용 의자가 없기 때문에 애를 안고 밥을 먹어야 되요. 뜨거운 국물 같은 것이 있으면 아이가 만질까 봐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또한 메뉴도 아이들이 먹을 만한 반찬이 거의 없어요. 맛없다고 먹지 않는 아이를 억지로 먹일 수도 없고, 힘들게 고생만하고 집에 가서 다시 밥을 해서 아이들 먹여야 되다 보니 교회 식당에는 한 두 번 가고 다시는 밥 먹으로 안가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교회 식당에서 영유아 자녀를 동반하여 함께 식사하는 부모의 모습은 거의 찾아 보기 힘들다. 이렇게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교회 와서도 배려 받지 못하고 환대 받지 못함으로 교회 오는 것이 점점 부담스럽고, 소외감 마저 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자녀들 때문에 교회가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참여자 B 와 D 는 그들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 B: *성경공부 모임에 첫 째 아이가 어렸을 때 유모차에 태워 참여했어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많이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참여했는데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성경공부 시간에 아이가 울어서 금방 달랬는데 끝나고 어떤 분이 아이 하나도 제대로 통제를 못하느냐며 핀잔을 주셔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울고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교회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지만 배울 수가 없어요.*

> D: *교회 등록하고 알파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알파 프로그램은 교회에서 유일하게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권사님들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방치하고 계셨어요. 아이들끼리 놓아두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논다고 하시며 권사님들은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서 아이를 맡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업고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결국 수료를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훈련 프로그램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참여자 B 와 D 의 경우는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에 속하는 성도들이다. 신앙성숙을 위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자들이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육아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교회 와서도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심리학자인 하인즈 코헛(Heinz Kohut)은 "인간은 관계의 그물망 안에서 태어나고 관계 안에서 자라다가 관계 속에서 죽는 관계적 존재이며, 이러한 관계적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랑과 관심이라는 심리적 산소가 필요하다"고 했다.[48]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과 관심인데 교회는 이들에게 이러한 사랑과 환대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들을 오히려 소외하고 있는 것이다. 소외란 인간들과 그 대상들 사이에 여러 가지 종류의 관계 분리, 깨어짐, 또한 상함을 의미한다.[49] 이러한 소외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인간이 범죄 함으로써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인간관계의 단절, 자연과의 단절을 초래했다. 그로 말미암아 "죽음, 죄책, 자기 파괴적 고난, 절망, 자살, 무의미, 허무" 등 소외의 처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50] 예수님은 이러한 소외된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관계를

---

[48] 전정희 and 한재희, "자기소외를 경험하는 목회자 아내의 심리사회적 현상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vol.23, no. 1 (2012): 159.

[49] Ibid., 160.

[50] 김미진, "노인자살 원인으로서의 소외에 대한 분석과 소외 극복을 위한 기독교 상담,"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vol.25, no. 3 (2014): 14-15.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51]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는 마땅히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캐시 블랙(Kathy Black)은 상호 의존신학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우리는 다른 지체의 위로가 담긴 접촉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스러운 용납과 포용, 그리고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심을 경험한다. 다른 사람과의 믿음의 친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임재 하심을 경험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52]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랑과 환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랑과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심을 경험하고 위로 받고 새 힘을 얻어야 한다. 강남순은 우리가 신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타자를 향한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53] 신을 향한 사랑과 타자를 향한 사랑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타자들에 대한 책임, 환대, 포용, 연민, 연대, 평등, 평화, 정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54]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랑과 환대보다는 소외와 무관심 가운데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소그룹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네 번째 범주(D)는 '소그룹'이다. 현재 내가 시무하는 치유하는 교회는 모든 교인들을 '목장'이라고 불리는 소그룹으로 소속시켜서 교인들을 목회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한다. 각 목장은 매주 모여 말씀과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

[51] 참고, 눅 2:14; 갈 3:28; 엡 2:13-14.

[52] Kathy Black, *A Healing Homiletic: Preaching and disability 치유 설교학: 설교와 장애*, trans. 이승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49.

[53]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 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193.

[54] 강남순, *정의를 위하여: 비판적 저항으로서의 인문학적 성찰* (서울: 동녘, 2016), 146.

를 사랑으로 돌보도록 지도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목장에 참여하는 인원은 출석 교인의 50%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50%는 목장에 행정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으나 목장 모임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엄마들 가운데 참여자 C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참여자들이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다.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목장 모임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되도록이면 목장 모임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참여자 B와 G는 목장 목임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 B: *신앙생활을 치유하는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교회 등록하고 얼마 후에 목장 언니에게 연락이 와서 목장 모임으로 초대되었어요. 처음에는 가정을 오픈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약간 있었지만 참여 하다 보니 금방 목장 식구들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다들 육아에 있어서 선배님들이다 보니 육아에 대한 정보도 얻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특히 육아 용품들도 물려 받고 좋아요.*

> G: *목장 모임을 통해 위로를 받을 때가 많아요. 비슷한 경험을 하는 엄마들끼리의 모임이다 보니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육아로 인해 힘들 때면 때때로 아이에게 화를 내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장에서 나누다 보면 저만 못된 엄마인줄 알았는데 다른 엄마들도 나와 똑같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아요. 사회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나만 뒤쳐지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지만 교회 목장에서 아이 엄마들끼리 만나면 서로 비슷한 처지이다 보니 비교의식이 안 생겨서 좋아요. 서로 아이 키우는 이야기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것도 많아서 목장 모임에 잘 나가고 있어요.*

참여자 B와 G의 인터뷰 내용처럼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위로도 얻고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도 얻는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목장 모임이 친교 모임의 수준을 넘어 좀 더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로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로버타 헤스티네스(Roberta Hestenes)는 소그룹을 “세 명에서

열 두 명의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하도록 계획된 모임"이라고 정의했다.[55] 얼굴로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얼굴은 생각하고, 느끼고, 감지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반영하는 내적 자아의 표현이며, 한 개인의 참된 본성을 드러낸다.[56] 다시 말해, 얼굴로 만난다는 것은 마음속 깊은 상처와 죄악까지도 숨김없이 나눌 수 있고 용납 받고 위로 받을 수 있는 은혜롭고 긍휼이 넘치는 매우 안전한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목장 모임을 통해 좋은 친교의 나눔은 하고 있지만 그 소그룹을 안전한 관계로 생각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참여자 E와 F는 다음과 같이 그들의 소그룹 경험을 고백하였다:

> E: *목장 모임에 처음에 참여 했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고백했어요. 순진했던 거죠.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들은 결국 나를 향한 정죄로 돌아왔고 목장 바깥의 사람들에게 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 이후로는 절대 목장 모임에서 제 속마음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적당히 포장하고 할 말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 F: *저는 타교회에서 치유하는 교회로 옮겨 온지 9개월 정도 되었어요. 처음에 목장 모임에 갔는데 목장 언니 중에 한 분이 충고를 해 주시더라구요. 어느 정도 걸러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마음속의 이야기를 했다가는 결국 상처 받게 되니까 지혜롭게 잘 하래요. 자기는 웬만하면 말 안하고 딱 할 말만 한다고… 그래서 저도 적당히 걸러서 이야기 하면서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교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긴 하는데 솔직히 목장 모임에 안 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참여자 E와 F의 고백처럼,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와 무관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에서 조차 진정한 환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콜만(Robert E. Coleman)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범을 교회가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

[55] Gareth Weldon Icenogle, *Biblical Foundation for Small Group Ministry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trans. 안영권 and 김선일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출판 유통사업부, 1995), 83.

[56] Ibid

각 성도들을 향한 "개인적 돌봄(personal attention)" 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오늘날 교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설교나 문화적 접근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계속적이고 개인적인 보살핌을 성도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57]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들을 향한 개인적 돌봄이다. 교회는 개인적인 돌봄을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하는 삶"(life together)이라고 불렀다.[58]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하는 삶, 즉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웃을 향한 한계 없는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것은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받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있다는 것이다. 베니토 무솔리니(Benito Mussolini)의 전체주의 정권하에서 저항 운동을 펼쳤던 그람시는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생충처럼 기생하는 것이라고 했다."[59] 왜냐하면 비판적 사유가 없는 무관심은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남순은 새로운 변혁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가 비판적 사유를 해야 하고 이러한 비판적 사유는 비판적 저항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한다.[60] 강남순의 주장과 같이 나는 교회가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얼마나 무관심 했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권력구조가

---

[57] Robert E. Coleman,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Michigan: Fleming H. Revell Company, 1993), 40-41.

[58] Dietrich Bonhoeffer, *Eine dogmatische Untersuchung zur Soziologie der Kirche 성도의 교제*, trans. 유석성 and 이신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40.

[59] 강남순, *정의를 위하여: 비판적 저항으로서의 인문학적 성찰*, 87.

[60] Ibid., 14.

작용하고 있는지 비판적 사유를 해야 하고 그를 통해 인식론적인 전환과 함께 새로운 변혁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교회가 이러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교회 안에서 소외되어지고 있는 이들을 환대하고, 이들을 위한 예배와 교제의 장을 열어 주어야 한다. 이들을 향한 인식론적 폭력을 해체하고 남성중심 시스템에서 기인한 부당한 요구를 접고, 이들의 어려움을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시켜 그들을 환대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가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베풀어야 할 환대는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Chapter III

환대 신학

A. 환대란 무엇인가?

환대(hospitality)는 손님이나 낯선 이방인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에게 가정의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는 것이며 그들에게 기쁨과 새 힘을 제공해주는 것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말이다.[61] 객으로서의 나그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과 양식 등을 제공해 줌으로써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며 안식하게 하는데 초점이 있다. 이러한 환대는 고대 이스라엘과 중동 유목민에게는 생존의 중요한 방편이었다. 당시에는 먼 길을 떠난 사람들이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환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따라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고 환대하는 일은 후에 자신도 먼 길을 떠났을 때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환대는 고대 세계를 떠받드는 기본 개념이었다.[62] 그러므로 환대는 낯선 사람을 나의 공간을 열어 들어 오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를 향한 적대를 거두어 들이고 나에게 접근을 허락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환대란 적대를 중지하고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환대를 단순히 주인이 자신의 공간을 열어 손님에게 호의를 베푸는 윤리적 수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시적 체류의 권리이자 교제의 권리"로써 환대의 권리를 주창했을 때, 그는 이 권리의 근거를 주인과 손님의 관계 윤리가 아니라 "인류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지구의 표면에 대한

---

[61] 정경호,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의 밥상," *기독교사상* vol. 657, no. 9 (2013): 81.

[62] Ibid., 80.

공통의 권리”에서 찾았다.[63] 다시 말해, 칸트는 사람들이 지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어떤 사람도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 대해 남보다 더 우선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64] 여기서 세계 평화를 위한 코즈모폴리터니즘(cosmopolitanism) 담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주의 시민”으로서 “동료 인간”이라는 의식과 함께 모든 인간이 도덕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이 코즈모폴리터니즘 담론의 핵심이다.[65] 이러한 도덕적 지위는 국가, 민족, 성별, 계층, 인종 등의 범주를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된다. 따라서 지구 위에 거하는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보존할 책임이 있다.[66] 이러한 코즈모폴리터니즘적인 환대에 대하여 김현경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 번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회 안에 자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67] 그러므로 환대란 낯선 이방인이나 나그네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 혹은 사회 안에 있는 그들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자리를 준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합당한 권리들을 준다는 것이며 권리들을 주장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환대란 자리가 없던 사람들이 환대를 통해 자리가 만들어 짐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권리가 없던 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68] 지금까지 다룬 환대에 대한 개념을 정리

[63]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6), 190.
[64] Ibid.
[65]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 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21.
[66] Ibid.
[67]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193.
[68] Ibid., 207-08.

하자면, 환대란 낯선 이방인이나 타자에 대한 적의를 내려놓고 우리의 공간으로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이 똑같은 우주적 시민으로서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잡고,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한다.

B. 환대의 대상

우리가 마땅히 환대 해야 할 타자, 이방인, 낯선자, 나그네는 누구인가? 리처드 커니(Richard Kearney)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이방인과 타자를 어떻게 여겨왔는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그 옛날 '외지인' 개념에서 현대 '에어리언 침략자'에 이르기까지, 이방인의 형상은 자주 인간으로 하여금 그러한 타자들을 뛰어넘거나 그에 대항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극한의 경험으로 작동했다. 그리스인들에게 그것은 '야만인'이었고 로마인들에게는 '에투루리아 사람(Etruscan)'이었으며, 유럽인들은 그것을 바다 건너에 있는 이국적인 '미개인'이라고 생각했다.[69]

다시 말해, 이방인은 외부 사람으로서 우리가 적대하고 경계해야 할 타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들을 외국인이나 방문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그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게르'(גר, 나그네)이다.[70] 이스라엘 사회에서 '게르'는 아무 권리를 지니지 못한 자들이었다. 구약성서에서 '게르'는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대표하는 고아와 과부와 함께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의 범주에 포함된다. 심지어 이들은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대상 중에서 가축과 종보다 뒤에 거론 될 만큼 그들의 처지가 열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71] 구약성서에서 '게르'는

---

[69] Richard Kearney, *Strangers, Gods and Monsters 이방인, 신, 괴물* trans. 이지영 (고양: 개마고원, 2004), 12.

[70] 왕대일, "나그네(게르, גר)–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vol. 113, no. Summer (2001): 102.

[71] Ibid., 104.

대부분 일당을 받고 살아가는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72] 채이니(Marvin L. Chaney)는 '게르'의 지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게르'의 지위는 그가 정치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온 사람이냐는 출신 성분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성서에 등장하는 "나그네"(sojourners)는 가뭄이나 기근, 또는 잉여 노동력 제공 같은 사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종종 한 국가 내부에서 발생되었다. 국가 내부에서 터진 전쟁이나 국가 간의 전쟁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나그네"를 생기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었다. '게르'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본래 살던 고장을 떠나서 살아야 했던 자이었다. 그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권리나 지위도 없었다.[73]

그러므로 '게르'는 단순히 이방인, 외국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 권력 구조 속에서 소외 당하고 무시 당하고 있는 자들이 환대 받아야 할 '게르'이다. 그러므로 '게르'는 꼭 손님과 나그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같은 신도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같은 가족 안에서도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람 일 수 있다. 이들이 우리가 환대해야 할 대상들이다.

이 뿐만 아니라 아감벤(Giorgio Agamben)은 그 영역을 조금 더 넓혀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권리를 누리지 못함으로 인권의 사각시대에 버려져 배제와 차별받는 약자들의 모습을 '호모 사케르(homo sacer)'[74]라는 개념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대변하였다. 아감벤에 따르면, "호모 사케르는 절대적인 살해 가능성에 노출된 생명, 법과 희생 제의의 영역 모두를

---

[72] 신 24:24-25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73] Marvin L. Chaney, *The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Sanctuary and Asylum: A Handbook for Commitment* (Geneva: WCC, 1990), 14-15, quoted in 왕대일, "나그네(게르, גר)-구약신학적 이해,"108.

[74] 진주영, "호모 사케르의 윤리: 창래 리의 제스처 라이프와 항복한 자 연구," *미국 소설* vol. 20, no. 2 (2013): 33.

초월하는 어떤 폭력의 대상을 가리킨다."[75] 다시 말해, 호모 사케르는 누군가가 그를 죽여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고, 그를 죽이는 행위 자체도 살인죄로 처벌되지도 않는 그야말로 이 땅에 존재하지만 존재로써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환대 받아야 할 타자요, 나그네요, 낯선자들이다.

C. 환대해야 하는 이유

환대란 나의 집에 나그네를 기꺼이 맞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우리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거주하는 것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추스르고 휴식을 취하며 불안정을 유예하고 향유를 예비할 수 있다고 이해한다.[76] 집은 외부 공간과 구별된 내부 공간으로써 우리의 보호막 구실을 한다. 그런데 환대를 통해 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나그네를 맞이함으로써 익숙함과 편안함의 리듬이 깨지기 때문이다. 즉 찾아온 나그네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뜨린다.[77]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익숙하고 안락한 세계를 열고 위험 부담이 있는 낯선 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미래의 불안정을 덜기 위해 애를 쓰고 모아 놓은 재물과 자원을 낯선 자에게 내놓고 대접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신과 인간이라

---

[75] 이종원, "난민과 탈북자의 윤리적 문제-아감벤과 레비나스의 이름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vol. 34 (2016): 124.

[76] 강영안, "향유와 거주: 레비나스의 존재 경제론," *문학과 사회* vol. 8, no. 4 (November, 1995): 1538-539.

[77] Ibid.

는 수직적 관계의 구도를 깨뜨리고 타락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포용으로 수평적인 차원의 신적 환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78] 우리가 이러한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번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듣고 하란을 지나 낯설고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79] 나그네가 된 아브라함은 낯설고 외로우며, 불편하고 초라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환대의 손길을 체험하였다. 나그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따뜻한 환대의 손길과 주변 이웃들로부터 받았던 극진한 환대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환대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80] 아브라함은 어느 날 그의 거처를 지나가는 낯설고 생소한 사람들을 집으로 적극적으로 초청하여 지극 정성으로 환대하고 대접하였다. 정경호는 아브라함의 환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아브라함의 환대의 첫째의 모습은 첫째 멀리서 지나가고 있는 낯선 사람들을 반가운 마음과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는 행동(seeing),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행동(running to meet), 존경을 표하는 행동(honoring), 초대하는 행동(inviting), 새 힘을 얻도록 자신의 공간에서 쉬게 하는 행동(refreshing), 음식을 준비하는 행동(preparing), 대접하며 섬기는 행동(serving)으로 나타난다.[81]

이렇게 아브라함의 환대의 경험은 극진한 환대의 실천으로 연결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로써 마땅히 환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게르'이기 때문에 환대해야 한다. 나그네의 사정은 나그네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윗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그네임을 고백하였다.[82] 왜냐하

---

[78] 김은정, "환대적 학습환경과 기독교교육," *인문학논총* vol. 33, no. October (2013): 235.
[79] 창세기 12:1-9
[80] 창세기 18:1-15
[81] 정경호,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의 밥상," 87.
[82] 시편 119: 19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레티 러셀(Letty M. Russell)은 우리가 언젠가 낯선 자들, 유배자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고통하며 살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들을 환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83] 왕대일도 '게르'가 이방인이나 다른 타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게르'인 것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게르'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에 마음을 쏟을 수 있기 때문이다.[84]

구약성서는 약자 보호법을 통해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자들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약자 보호법은 단순히 인도주의적으로 그들을 도우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단순히 약자 보호법을 인도주의적인 도움으로만 생각한다면 구약 성서의 삶의 환경과 약자 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신학적 동기의 독특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85] 이스라엘이 약자들을 보호하고 학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나그네로 있었던 경험을 거울 삼아야 함에 있다. 이스라엘이 역사 안에서 겪은 고난의 경험에 대한 신학적 반성을 통해 약자들을 보호하고 환대해야 함에 있다.[86] 다시 말해, 약자로서 고난을 당해 본 사람은 약자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게르'로 살았었음을 주지시키면서 야웨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게르'에 대한 윤리적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87]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이 나그네였기

---

[83]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공정한 환대–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trans. 여금현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12), 157.

[84] 왕대일, "나그네(게르, גר)–구약신학적 이해," 121.

[85] 김이곤, "약자 보호법, 계약법전," *기독교사상* vol. 32, no. 10 (1988): 189–90.

[86] Ibid., 15.

[87] 신명기 26:5–11

때문에 ‘인식론적 특권’을 가지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환대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식론적 특권이란 억압을 경험한 사람은 억압에 대한 고통과 억울함을 체험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억압 아래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했다는 것이다.[88] 다시 말해, 억압 받아본 사람이 억압 받는 사람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Auschwitz)의 혹독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던 레비나스는 타자를 위한 윤리를 제일 철학으로 삼았다.[89] 레비나스가 타자를 향한 희생과 사랑, 환대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유도 그가 혹독한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통해 타자들을 향한 인식론적 특권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그네의 고통을 경험해 보았던 우리는 마땅히 고통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환대해야 한다.

D. 환대의 유익

신약성서에서 환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필로크세니아’(φ ι λ ο ξ ε ν ί α)는 ‘필로스’(φ ί λ ο ς)와 ‘제노스’의 합성어로써 ‘낯선자를 사랑함’이란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환대의 어원적 의미 속에는 문자적으로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환대를 통해 신비한 반전과 같이 생겨나는 기쁨이 있음을 또한 의미한다.[90] 왜냐하면 헬라어 명사 ‘제노스’(ξ έ ν ο ς)는 손님,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가 동사형이 되면 “손님으로 환영하다”란 뜻 뿐만 아니라 “놀라다”와

[88] 정희수,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의 구스타보 구티에레즈와 아시아 해방신학의 알로이시우스 피에리스 비교-가난의 문제와 영성을 중심으로,” *세계의 신학* vol. 6 (1990): 241.

[89] 이종원, “난민과 탈북자의 윤리적 문제-아감벤과 레비나스의 이름을 중심으로,” 127.

[90] Ibid.

"나그네로서 어떤 이 혹은 어떤 것을 소개하다"의 뜻이 있다.[91] 환대를 통해 전혀 뜻밖의

놀라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환대를 베풀 때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은 유익과 기쁨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파커 파머(Parker

Palmer)는 환대가 우리에게 미치는 유익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환대란, 우리의 가정의 공간이든 혹은 우리들 개인의 인식과 관심의 공간이든 간에, 우리 개인의 공간으로 그 나그네를 초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떤 중요한 변형이 일어난다. 우리 개인의 공간은 순식간에 확대되어져 더 이상 견고하지도, 답답하지도, 또 엄격하지도 않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이며, 자유롭다. 그리고 우리의 공간 역시 빛으로 환해진다.… 그 나그네에 대한 환대는 다른 눈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이 새롭게 된 것을 알게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92]

다시 말해, 나그네를 영접하는 환대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구약 성서에서 아브라함(Abraham)과 사라(Sarah)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경험했듯이, 환대는 낯선 자를 상대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는 선물이

된다.[93] 아브라함은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이 들어 생명 잉태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사라를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94] 신약 성서에서도 작은 자들에게 대하는 환대가

결국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가 되고 후에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95]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를 환대했을 때 더욱 빈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

[91] Jone Koenig, *New Testament Hospitality 환대의 신학*, trans. 김기영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2002), 28.

[92] Paker Palmer, *The Company of Strangers: Christians and the Renewal of America's Public Life* (New York: Crossroad, 1981), 65, quoted in Ibid., 25.

[93]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공정한 환대-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157.

[94] 창세기 18:1-15

[95] 마태복음 25:31-46

축복을 받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다.

E. 환대의 실천

우리가 환대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코즈모폴리터니즘 담론에서는 "모든 개별인들이 그 사람의 다양한 사회정치적 또는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이 우주에 소속된 시민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96] 강남순은 이러한 우주적 사랑과 환대를 가능하게 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코즈모폴리터니즘 담론과 종교의 연결점을 환대로 보고 환대 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종교란 "제도화된 종교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랑, 연대, 환대의 실천"이기 때문이다.[97] 실제로 예수가 이 땅에서 몸소 실천함으로써 보여준 가르침의 핵심 또한 환대이다. 율법에 의해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 받던 연약한 변두리 타자들에게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교제에 조건 없이 초청하여 그들을 환대하였다.[98]

신약성서의 대표적인 식탁교제 이야기인 오병이어 기사(마가복음 6:30-44)는 예수의 이러한 환대의 실천을 잘 보여준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초청한 무리는 '오클로스'(ὄχλος)였다. '오클로스'는 노예나 강제 노역자들처럼 국가에 대한 적절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지 못한 자들로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다.[99] 우진성은 이러한 '오클로스'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이들은 당시 피라미드 모양의 신분체계에서 밑바닥 층을 형성했던 이름 없는 무리들이었고, 경제적 착취와 식민 억압의 첫 번째 희생자들이었으며, 종교적으로는 "죄인"이라 불리던 이들이었다. 한마디로, 이들은 사회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

---

[96]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234.

[97] Ibid., 235.

[98] 차정식, "역동적 삼각관계와 공동체의 윤리-빌레몬서와 요한삼서를 중심으로," *신약논단* vol. 19, no. 2 (2012): 612.

[99] 우진성, "그리스-로마의 심포지움을 통해서 본 예수의 오병이어 이야기- 마가복음 6:30-44 를 중심으로," *신약논단* vol. 20, no. 1 (2013): 100-01

의 존엄을 누리지 못한 이들이었다.[100]

예수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인 ‘오클로스’와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었다. 마가는 이러한 예수의 식탁교제를 ‘심포지움’(symposium)으로 묘사한다. 한글 성서에 “떼를 지어”로 번역된 단어는 희랍어 ‘숨포시아’(σ υ μ π ό σ ι α)이다. 이 단어는 ‘심포지움’을 말한다.[101] 그리스-로마 시대의 ‘심포지움’은 사회의 신분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하였다. 누워서 대접받으며 음식을 먹는 자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서서 음식을 제공하고 시중드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노예들이었다.[102] 당시 그레코로만 시대의 식탁의 문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회적 위계질서를 확인하고 그 질서를 공고히 하고 재확인하는 것이었다.[103] 그런데 예수의 식탁교제에서 보여지는 사회적 위계질서는 어떠했는가?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음식을 받기 위해 누운 사람들은[104] ‘오클로스’들이고, 서 있는 사람은 예수와 제자들이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의 식탁 교제가 ‘심포지움’ 이었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심포지움’을 위해 노예처럼 섬기면서 서있는 자가 바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었음을 보여준다.[105]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의 사역이 사회적 약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위해 종의 모습으로 섬겼음을 알 수 있다.

예수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의 표상으로써 가난한자, 약한자, 소외된 자들에게 환대를

---

[100] Ibid., 101.

[101] Ibid., 98.

[102] Ibid., 109.

[103] 우진성, “고린도교회의 주의 만찬에 나타난 배고픈 자들과 술취한 자들의 정체,” *성서학 학술세미나* vol. 2008, no.3 (2011): 39-40.

[104] “ἀ ν α κ λ ί ν ω는 한글번역처럼 "앉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라, "위를 향해"(ἀ ν α) + "눕다"(κ λ ί ν ω), 즉 심포지움에서 기대 누운(reclining) 자세를 묘사하는 전문용어이다.” 우진성, “그리스-로마의 심포지움을 통해서 본 예수의 오병이어 이야기- 마가복음 6:30-44를 중심으로,” 98.

[105] Ibid., 109-10.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예수의 환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준다.[106] 이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제 자신과 동일하게 환대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왜냐하면 타자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보살피는 삶이 다름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07] 그래서 예수는 최후 심판 이야기(마 25:35-46)를 통해 환대가 자신의 사역의 핵심이며 또한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명임을 가르치신 것이다.[108]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온갖 이기주의와 비인격적인 소외와 갈등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생명과 샬롬의 땅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환대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환대의 삶을 실천할 때 사람들의 아픔과 억눌렸던 서러움이 감동의 눈물로 바뀌고 그들의 삶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109] 러셀에 따르면 환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치유와 정의"를 가져온다고 강조한다.[110] 또한 존 코닉(John Koenig)의 "환대의 신학"을 번역한 김기영도 서문에서 환대는 치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한다.[111] 작은 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타자를 위한, 타자를 향한 존재임을 늘 인식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본질이다.[112] 이처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환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받았던 가난한자, 약한자, 소외된 자들에게 환대를 베풀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환대하라는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106] 김은정, "환대적 학습환경과 기독교교육," 243.

[107]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250.

[108] Ibid., 247.

[109] 손운산, "낯선이를 환대하라," *기독교 사상* vol. 640, no. 4 (2012): 264.

[110]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공정한 환대-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48.

[111] Jone Koenig, *New Testament Hospitality 환대의 신학*, 9.

[112] 이후정, "이웃 사랑과 환대의 영성," *기독교 사상* vol. 674, no. 2 (2015): 206-07.

그러나 환대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환대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심층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이다. 그는 성서 안에 나타난 무조건적 환대의 문제점을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 설명한다.[113] 창세기 19장은 손님을 보호하고 환대하기 위해 자신의 시집가지 않은 딸들을 동네 불량배들이 성폭행할 수 있도록 내어놓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사기 19장도 역시 손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처녀 딸과 손님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성폭행 당하게 내어준 이야기가 등장한다. 데리다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환대 속에 나타난 문제점을 윤리적 문제와 연결하여 지적한다. "환대의 법들을 만드는 것은 가정의 폭군, 아버지, 남편, 그리고 어른인 집주인이다. 그는 환대의 법들을 표상한다. 그리고 그는 이 법들에 복종하는데, 그것은 환대 권한의 폭력에서, 자기성의 세력에서 타인들에게 이 법들을 행사하기 위해서이다."[114] 다시 말해, 무조건 적인 환대를 위해 여성의 생명과 인권이 무시당하고 유린당하는 폭력이 행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데리다는 환대에 대하여 무조건적 환대와 조건적 환대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이 두 종류의 환대의 구분과 연결성은 환대의 다양한 딜레마와 복합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115]

무조건적 환대란 자신의 집을 아무런 제재나 계약 없이 무조건적으로 개방하여 낯선 손님이나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조건 없이 환대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무조건적 환대는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손님 또는 낯선 이방인의 입

[113] Jacques Derrida, *De l'hospitalite' 환대에 대하여*, trans. 남수인 (서울: 동문선, 2004), 150-55.

[114] Ibid., 150.

[115]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241.

장에서 환대하는 것이며, 손님을 초청하여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한 환대이다.[116] 심지어 전혀 생소한 낯선 이방인이나 심지어 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무조건적으로 환대하는 것을 뜻한다. 데리다는 이러한 환대를 "방문(visitation)의 환대"라고 부른다.[117]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무조건적인 환대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범죄자로 지정한 사람을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환대한다면 그 무조건적인 환대는 "범죄적 행위"가 된다.[118] 그러므로 환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정황들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환대와는 반대로 조건적 환대는 언제나 타자나 낯선 이방인이 우리의 규칙과 삶에 대한 우리의 규범, 더 나아가 우리 문화와 정치 체계 등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환대를 제안하는 것이다. 데리다는 이러한 환대를 "초대(invitation)의 환대"라고 부른다.[119] 다시 말해, 제한 적으로 조건을 걸고 낯선 이를 나의 공간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건적 환대는 주인의 입장에서 환대하는 것이며, 나를 전적으로 개방하여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환대는 지양하고 조건적 환대만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데리다는 무조건적인 환대와 조건적인 환대가 서로 반대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120] 다시 말해, 무조

---

[116] Ibid., 241-42.

[117] Giovanna Borradori,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테러시대의 철학: 하버마스, 데리다와의 대화*, trans. 손철성, 김은주 and 김준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234.

[118]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240.

[119] Giovanna Borradori,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테러시대의 철학: 하버마스, 데리다와의 대화*, 234.

[120] 정경호,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의 밥상, 82.

건적인 환대의 개념이 없이 조건적인 환대가 있을 수 없으며, 조건적 환대가 없이는 무조건적 인 환대를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데리다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환대에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한정되고 제한 가능하고 한계를 확정 할 수 있는, 한마디로 계산 가능한 권리가 발효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121] 라고 묻는다. 다시 말해, 데리다는 무조건적인 환대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어떻게 조건적인 환대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김애령은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은 방문의 환대가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야 할 만큼 극단적인 것이라도 할지라도, 이 이념은 보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122] 무조건적인 환대의 이념을 가지고 조건적인 환대가 누군가에게 적대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리다는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환대를, 환대 그 자체를, 최소한 사유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환대 일반의 개념을 갖지 못할 것이며 (자신의 의례와 법규, 규범, 국내적 관계나 국제적 관례로 이루어지는) 조건부 환대의 규준조차 정할 수 없을 것"[123]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환대를 실천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환대의 정신 아래에서 조건적 환대의 규칙과 규범을 제시하고 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F.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환대

심층 면담을 통해 드러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네 가지 범주의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첫째, 그들은 인식론적 폭력 아래 자모실의 불편함 속에서 예배 참여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둘째, 가부장제적인 억압아래 부담감을 느끼고 있

---

[121] Jacques Derrida, *De l'hospitalite' 환대에 대하여*, 149.

[122] 김애령,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 39 (November 2008): 189.

[123] Giovanna Borradori,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테러시대의 철학: 하버마스, 데리다와의 대화*, 235.

고, 셋째, 교제와 교육프로그램에서의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마지막 넷째,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교회 안에서 유일한 교제의 끈이 되는 소그룹에서 조차 진정한 환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성도의 교통과 참된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교회 바깥의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모임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형식적인 모임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 코닉은 "환대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공간에만 사람들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여들게 되고, 그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소속하게 하고, 그 공동체에 헌신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강조한다.[124]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교회 안에서 환대 받지 못하므로 교회 공동체에 깊이 소속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자신들의 자리를 잡지 못하는 주변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어떻게 환대 할 것인가?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환대를 받아야 할 '게르'이다. 이들을 환대하기 위한 교회 공동체의 선행 과제는 바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향한 인식론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인식론적 폭력아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서벌턴' 같은 존재가 아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똑같은 존재가치가 있으며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이며, 자주적인 독

[124] Jone Koenig, *New Testament Hospitality 환대의 신학*, 10.

립심보다는 서로간의 상호의존의 마음이 더 귀한 것으로 존중되는 곳이어야 한다.[125]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구성원도 소외 당하거나 주변부로 밀려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캐시 블랙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어떠한 마음으로 존중해야 하는지 상호의존 신학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하나님은 자립만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교회라는 상호의존의 세계로 우리를 따로 구별해 불러들이신다. 상호의존의 신학은 모든 개개인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 그 이유는 이들 각자가 어떤 우월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모두가 전체 공동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상호 의존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지체에게 의존해야 함을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증언하기 위한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역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계심을 강조한다. 상호의존성은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일깨워준다.[126]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향한 인식론적 폭력을 내려놓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론적인 전환이 있을 때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존중 받고 환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교회가 환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돕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환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조건적인 환대가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의 "구체적인 정황(contect-specific)"[127]속에서 무조건적인 환대의 정신을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조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환대가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영

---

[125] Kathy Black, *A Healing Homiletic: Preaching and Disability 치유 설교학: 설교와 장애*, 54.

[126] Ibid., 55.

[127]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241.

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자모실에서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대그룹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모실을 둔 취지를 잘 생각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시 말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배려하기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줌으로써 자모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더불어서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 시간에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도 마땅히 받아야 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들은 교회 공동체가 인식론적 전환을 이룸으로써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소중한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면 얼마든지 환대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구체적인 도움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하기 보다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환대하기 위한 목회적 대안으로 소그룹 사역을 강조하고자 한다. 캐시 블랙은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과 함께하고 같이 울어줌으로써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고 공동체가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28] 이러한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은 대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환대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서로를 환대하며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위한 목회적 대안

[128] Kathy Black, *A Healing Homiletic: Preaching and Disability 치유 설교학: 설교와 장애*, 50

으로 환대 신학적 소그룹 사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이러한 소그룹의 핵심은 놓치고 교회 성장을 위한 방편으로 소그룹 사역을 하다보니 환대 신학적 소그룹의 역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행정적인 소그룹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소그룹은 피상적으로 가면을 쓰고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환대가 있는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아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 안에 환대가 없었기 때문에 소그룹에 참여하면서도 소외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렇다면 환대적 신학적 소그룹은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Chapter IV

환대 신학적 소그룹

A. 소그룹이란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소그룹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작은 규모의 모임'이라고 정의한다.[129] 그러나 이러한 소그룹에 대한 정의는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전 세계에 걸쳐 만들어진 수많은 소그룹들 즉, 가족, 학교의 반, 취미활동 모임, 회사의 부서 등등 모든 작은 규모의 모임은 모두 소그룹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관점으로 그 범위를 줄여서 소그룹을 정의 한다면 소그룹을 어떻게 정의 해야 하는가? 조엘 코미스키(Joel Comiskey)는 소그룹이란 "영적인 세움과 전도를 위해 정규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그룹, 또는 지역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한다.[130] 코미스키의 정의에 따르면 소그룹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전도라는 것이다. 또한 크리스티안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는 세계 32개국의 1천 교회를 대상으로 420만개 이상의 설문을 조사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질적 특성 8가지 원리를 제시 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소그룹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그는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만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소그룹의 번식이라고 할 것이다."[131] 슈바르츠 또한 소그룹의 중요한 목적이 번식 즉, 전도에 있음을 강조한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코미스키나 슈바르츠가 주장하는 것처럼

---

[129] Joel Comiskey, *Home Cell Group Explosion: How your Small Group Can Grow and Multiply* (Houston, Tex.: Touch Pulications, 1998), 13.

[130] Ibid.

[131] Christian A. Schwarz, *Natural Church Development: A Guide to Eight Essential Qualities of Healthy Churches 자연적 교회성장*, trans. 윤수인, 정진우, 박동건 and 오태균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13.

전도중심 소그룹 사역에 집중하였다. "한국교회는 1990년대 이후부터 한국교회의 성장이 정체상황을 맞고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전체교회의 약 20%정도, 성장이 정체된 교회도 전체교회의 약 55%, 그리고 교인 수가 감소되고 있는 교회도 약 25%에 이르고 있다."[132]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는 그 해결책으로 복음전도와 교회 성장에 효과적인 각종 소그룹 사역에 집중하였고 몇 교회의 성공 사례에 열광하게 되었다. 실제로 1988년에 프린스턴 종교 연구 센터 (Princeton Religious Research Center)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소그룹이 1990년대의 "전도의 도구"라고 결론을 맺었다.[133] 소그룹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열린 모임이고 실제로 소그룹 사역이 교회성장에 매우 효과적인 사역이라는 것이다.[134] 따라서 소그룹 관련 연구들도 거의 교회 성장에 관심을 두고 소그룹을 연구한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복음 전도가 매우 중요한 사역이고 이로 인해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부분만을 강조하다 보면 소그룹이 가지는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 몇 해 전에 소그룹 운동을 통해 크게 성장한 윌로우 크릭 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의 빌 하이벨스(Bill Hybels)목사가 교회 구성원들을 조사 연구한 이후에 윌로우 크릭 교회는 숫자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을 예수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는 실패했다고 고백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135] 교회가 소그룹의 본질을 놓치면 그 구성원들은 영적인 공허감에 시달리고,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역시 참다운 의미의 사랑과 돌봄의 관계로 나아가지

---

132 김승호,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일곱 가지의 원리에 대한 고찰," *개혁주의 교회성장학회* vol. 3, no. 2 (2008): 2.

133 Neal McBride, *How to Lead Small Group* (Colorado Springs, Col.:Navpress, 1990), 22.

134 Joel Comiskey, *Home Cell Group Explosion: How your Small Group Can Grow and Multiply*, 23.

135 정재영, "소그룹을 통한 교회 공동체의 실현," *교회와 사회* vol. 55, no. 606 (2008): 56.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136] 사회학자인 니스벳(Robert A. Nisbet)은 이런 소외가 번져나가는 현상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작은 규모와 안정된 구조의 공동체"라고 말한다.[137]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고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현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삶을 나눌 소그룹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138]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 나가야 할 본질적인 소그룹은 무엇인가? 아이스노글(Gareth W. Icenogle)은 소그룹 사역을 통해 엄청난 숫자의 교인을 이루어 낸 교회들이 있지만 기독교 소그룹 운동의 신학적 깊이는 매우 얕음을 지적하면서 소그룹은 교회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임을 강조한다.[139] 그는 소그룹의 중요성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고통을 나누며, 서로의 인간적인 공감대를 확인하고, 꿈과 희망을 갖고, 손을 맞잡고, 서로 부둥켜안고 인사를 나눌 때마다, 우리는 서로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 친구가 되어, 진실을 말하고, 사람을 밝히 보여주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겉으로 보기에 뭔가 화려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더욱 가까워졌고, 하나님이 더욱 가깝게 느껴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졌다. 주님, 나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람들의 소그룹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140]

아이스노글은 소그룹을 통해 성도들간의 친밀한 교제와 환대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된 행복을 느낌으로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

[136] 홍정수, "소그룹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1), " *세계의 신학* vol. 34 no. February (1997): 99.

[137] 정재영, "소그룹을 통한 교회 공동체의 실현," 10

[138] Jone Koenig, *New Testament Hospitality 환대의 신학*, 11.

[139] Gareth Weldon Icenogle, *Biblical Foundation for Small Group Ministry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13.

[140] Gareth Weldon Icenogle, *Biblical Foundation for Small Group Ministry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10.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도와 관리를 위한 행정적인 소그룹이 있어 왔지만 치유와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소그룹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생명력이 힘을 잃어가게 되었다. 김한옥은 "한국교회가 소그룹을 조직만 해놓고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141] 소그룹 모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지향적인 건강한 소그룹을 세워나가지 못함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친밀한 교제와 환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한 쪽 날개를 회복해야 한다. 윌리엄 벡헴(William A. Beckham)에 따르면 "창조주께서는 두 날개를 가진 교회를 창조하셨다. 한 날개는 대그룹의 예배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두 날개를 사용할 때 교회는 하늘 높이 날아서 하나님 앞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142]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대그룹과 더불어 소그룹안에 진정한 예배와 교제, 그리고 환대와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그룹 모임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공부를 하거나, 전도를 목적으로 하거나,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단순히 교제를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내재하심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환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성도의 교통이 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은 소그룹 모임 안에서 진실하고 허물없이 자신의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치유를 경험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그룹은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가 있고

[141] 김한옥, "한국교회 소그룹 목회의 실태와 발전 방안," *신학과 실천* vol. 43, no.12 (2007): 9.

[142] William A. Beckham, *The Second Reformation: Reshaping the Church for the Twenty-First Century* 제 2 의 종교개혁, trans. 터치 코리아 사역팀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32.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과 친교의 떡을 떼는 나눔과 화목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그룹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적 소그룹이요, 환대신학적인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환대 받지 못하고 소외 가운데 있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이러한 환대 신학적 소그룹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환대 신학적 소그룹이란 무엇인가?

B. 환대 신학적 소그룹

환대신학적 소그룹은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드신 소그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유비'[143]를 이루는데 이는 소그룹이 가지는 관계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의 사귐 속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평등한 상호관계이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연합으로 계신다는 것이다.[144]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소그룹의 관계는 친밀하고, 상호적이고, 대화적이고 성장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소그룹을 통해 사람들은 용서와 치유와 성숙을 경험하고 아바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 사랑과 진리의 소그룹 공동체는 상처받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그들의 실

[143] 칼 바르트(K. Barth)의 기독론적 인간론(Christological anthropology)에 의하면 관계유비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 서로간의 사랑의 관계와 서로 유비를 이룬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원래 인간 서로간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재현, "인간형상과 하나님 형상: 내면적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목회신학적 고찰," *한국 목회 상담학회* vol. 21 (2013): 205-06.

[144] 김유준, "아우구스티누스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삼위일체론 비교 연구," *한국교회사학회* vol. 37 (2013): 210.

패와 고통과 상처와 중독을 나누는 경험을 한다. 그들은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내며, 들어주고, 진리와 사랑으로 반응한다.[145]

존 코닉은 이러한 소그룹의 친밀한 관계를 환대로 정의하고 이러한 환대 신학적인 소그룹이 신약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밝힌다. 예수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환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들을 환대하는 제자 공동체를 만드는데 집중했다.[146] "예수는 가난하고 약탈당한 이들에게 많은 말씀을 했으며(마 11:5, 눅 6:20-23, 12:22-34), 그들을 돕는 말을 했다(막 10:21, 12:41-44, 눅 14:13-14, 16:19-31)."[147] 이러한 예수의 환대를 통해 실제로 제자 공동체는 다양한 부류, 모든 조건의 사람들이 예수의 영접을 받고 제자 공동체가 되었다.[148] 이러한 제자 공동체의 모범을 따랐던 초대교회는 환대 신학적 공동체로 세워졌다. 존 코닉은 1 세기 교회의 환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1 세기의 사회속에서 많이 늘어난 소외된 사람들 중에서, 남자의 도움없이 살아가는 유대인 여자들과 어느 정도 확실한 부를 가지고 있지만 경력상(소외된) 해방된 노예들은 제국의 귀족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았지만 '기독교인 집단의 친밀함'은 하나의 잔인한 세계로부터의 '환영받는 피난처' (welcome refuge)로서 인식되어 왔다.[149]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고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하나님에게 환대 받는 것이 기독교인의 유산이며 희망이었다.[150] 이렇듯 초대교회 소그룹의 특징은 환대이고 이 환대는

---

[145] Gareth Weldon Icenogle, *Biblical Foundation for Small Group Ministry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457-459.

[146] Jone Koenig, *New Testament Hospitality 환대의 신학*, 61-62.

[147] Ibid., 61.

[148] Ibid., 72.

[149] Ibid., 108.

[150] Ibid., 5.

영적 공동체 내에서의 치유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151] 환대를 통해 사람들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마음을 열어 모여들게 되었고, 그 공동체의 환대를 통해 회개와 화해와 함께 하나됨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환대가 소그룹 사역의 가장 기초가 되며 목회적 치유의 핵이라고 할 수 있다.[152] 그러므로 환대신학적 소그룹이란 뭔가 특별한 소그룹이 아니라 예수 제자 공동체나, 초대교회 소그룹과 같이 환대신학을 내포하고 있는 소그룹이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환대신학적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움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존중 받고 사랑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 한다.

레티 러셀은 이러한 환대가 교회의 사명임을 강조한다. 환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세상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을 실천하는 것이다.[153] 특별히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까지 접촉하고, 낯선 자들과 동반자가 되는 것이 곧 환대이다.[154]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주변의 소외 당하는 자들을 향해 늘 연민적 시선을 가지려 노력함으로써 교회의 사명을 실천해야 한다. 여러 부류의 소외된 자들 가운데 특별히 본 연구가 집중하고 있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도 인식론적 전환을 통해 마땅히 환대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환대신학적 소그룹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영적 교제를 통해 아바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경험토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성도의 참된 교제를 통해 환대를 경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다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환대 신학적 소그룹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

[151] Ibid., 9-10.

[152] Jone Koenig, *New Testament Hospitality 환대의 신학*, 11.

[153]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공정한 환대-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24.

[154] Ibid., 25.

하는가? 다음 장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환대 신학적 소그룹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C. 환대 신학적 소그룹 예배(리터지, *leiturgia*)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환대 신학적 소그룹은 함께 참여하는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 소그룹 예배는 단순히 서로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문제를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아 성도의 교제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배이다. 벡헴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역자로 부름 받았음을 강조한다.[155]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예배의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소그룹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를 베푸는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그룹 예배는 기존의 예배처럼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의 주체가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획되어진 예배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기존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또한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예배에 깊이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예배학자 로버트 웨버는 진정한 의미의 예배(리터지, *leiturgia*)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예배에서 하나님의 변혁의 힘을 경험하기 원하는 교회는 회중 각자의 진심어린 참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참여는 예배 갱신에 필수적이다. 사실 그러한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를 갱신할 수 없다. 예배는 우리에게(to) 베풀거나 우리를 위한(for)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 의해서(by) 행해져야 한다. 그러므

---

[155] William A. Beckham, *The Second Reformation: Reshaping the Church for the Twenty-First Century* 제 2 의 종교개혁, 66.

로 예배 갱신을 원하는 교회는 회중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 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156]

따라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회중으로써의 예배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소그룹 예배처럼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그룹 예배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서신서의 여러 구절들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모여 찬양과 교제 그리고 교육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준다.[157] 특히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158] 여기서 '각각(each of you)'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예배에 능동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159]

이렇게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엄마들이 적극적 참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들의 영적인 필요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그들이 소그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줌으로써 그들이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그룹 모임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1. 환대의 밥상

[156] Robert E. Webber, *Blended Worship 예배가 보인다 감동을 누린다*, trans. 김세광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104-05; quoted in 박해정, "은혜의 수단으로써의 예배: 회중의 예배 참여 방안 연구," *신학과 세계*, vol. 68, no. 6 (2010): 240.

[157] 고린도전서 16:19; 로마서 16:5; 골로새서 4:15

[158] 고린도전서 14:26

[159] Ralph Webster Neighbour, *The shepherd's Guidebook: Spiritual and Practical Foundations for Cell Group Leaders* (Houston, Tex: Touch Outreach Ministries, 1996), 233.

무엇보다 먼저 소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모임을 시작해야 한다. 밥상을 함께 나누는 행위 속에 담겨있는 환대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 중에 하나이다.[160]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 마다 서로 떡을 떼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161] 이러한 환대의 밥상을 통해 공동체의 분위기는 부드러워지고, 구성원들은 마음 문을 열게 됨으로써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162]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 식탁교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첫 번째로 식사를 대접받는 다는 것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의미는 서로가 동등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식탁교제는 구성원들에게 서로가 동등하며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준다. 우리 문화 가운데 조선시대로부터 1960년대까지 우리네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동제(洞祭)라는 마을 축제가 있다. 동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의 건강과 평화를 빌기 위한 축제이다.[163] 정경호는 이 동제에 나타난 환대의 밥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동제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제사가 끝난 후에 함께 춤을 추고 즐기면서 오락적인 축제로 이어지는데, 이때는 남녀노소 차별 없이 함께 하나가 되어 축제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즐겨나가는 것이다… 동제가 끝난 후에는 제사상에 차려진 가장 좋은 음식은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서 가장 낯선 사람과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환대의 마음으로 먼저 대접하였다고 한다.[164]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환대의 밥상을 통해 서로를 대접함으로써 각각의 구성원이 소중한 존재이며,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할 존재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는 모든

---

[160] 정경호,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의 밥상," 83.
[161] 사도행전 2:46
[162]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도, 1999), 76.
[163] 정경호,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의 밥상," 85.
[164] Ibid., 85-86.

구성원들이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강한 의식을 갖게 되고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환대의 밥상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고 구성원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성원 서로가 자신이 그 그룹에서 귀중한 존재로 대접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자신을 공동체에 개방하게 되며, 자신의 개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소그룹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환대의 밥상을 함께 나눔으로써 모임을 시작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위한 식사는 누가 준비해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가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자녀 돌보미 서비스와 함께 식사도 준비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배려와 환대의 정신이 없이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소그룹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2. 감사의 찬송

환대의 밥상 나눔 후에는 다 함께 찬송시간을 갖는다.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은 대부분 찬송으로 그 문을 연다. 또한 개인 경건의 시간도 대부분 찬송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찬송시간을 마치 마음 문을 열기 위한 준비단계 정도로 생각한다. 물론 찬송을 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찬송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 즉 결과중의 하나이지 그 이유 때문에 찬송하는 것은 아니다.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명백한 의무이며 명령이다.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us)은 찬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찬송이란,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이다. 만일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무엇이든지를 찬송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찬송이라고 할 수 없다."[165] 다시 말해, 우리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만을 찬송하도록 부름 받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찬송한다는 것인가? 스펄젼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노래하라고 말한다.[166]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감사에 대해 연구해 온 맥컬리와 그의 동료들(McCullough, Emmons and Tsan)은 감사를 다음과 같이 논한다:

> 감사 성향은 정서적 특질의 일종으로, 자신에게 벌어진 긍정적인, 경험이나 좋은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일반화된 성향이다. 예컨대, 개인이 이룬 성취에 대해 오로지 자신의 능력이나 혹은 운에 의한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과, 자신이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주변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는 일관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167]

다시 말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한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은 우리의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이 실험을 통해 이미 증명이 되었다.[168] 또한 찬송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건강한 자아인식과 타인에 대한 존중심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자아인식과 타인에 대한 존중심은 결국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169] 이렇게 찬송을 통한 감사는 소통능력의 향상과 함께 행복감과 삶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찬송을 통해 소그룹 예배는 기쁨과 감사, 존중과

---

[165] 문용식, "찬양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영성," *신학지남* vol. 70, no. 4 (December 2003): 149.

[166] Ibid.

[167] 김주연, 진보래 and 김주환, "생활 만족도와 감사 성향이 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 변인으로," *한국언론학보* vol. 58, no. 4 (August 2014): 244.

[168] Ibid.

[169] Ibid., 239-40.

환대가 넘치는 아름다운 소통의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 특별히, 소그룹에서 함께 찬양을 할 때 찬양 인도는 구성원들 중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은사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3. 말씀과 삶의 나눔

감사의 찬송 후에는 말씀과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은 리더가 설교를 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종종 '설교하다'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디알로기조마이 (διαλογiζομαι)'이다. 문자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하다'를 의미한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밤늦게까지 강론했을 때,[170] 바울은 끝없이 독백을 늘어놓는다는 의미에서의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화, 곧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171] 이와 같이 소그룹에서의 말씀 나눔 시간은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사도바울의 대화와 같은 것이다. 또한 소그룹 예배는 성경공부 모임이 아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소그룹에서의 말씀 나눔을 성경공부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성경공부는 교회에서 소그룹 예배 시간외에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해야 하고, 소그룹에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들었던 말씀이나 묵상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았는지 나눔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삶을 통해 영향력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물론, 소그룹 예배는 성경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다양한 성경 해석과 적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의 책 '기독교 교육론'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원저자가 표현 하고자 하는 정확한 뜻을 다 붙잡지

[170] 사도행전 20:7

[171] Wolfgang Simson, *Houses That Change the World: The Return of the House Churches* (Emmelsbull: C&P Publishing, 1999), 84-85.

못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해석을 했다면 그 해석은 해롭거나, 거짓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의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이다.[172]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예배의 말씀 나눔도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되는 나눔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나눔은 구성원들 간에 가족과 같은 연대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눔을 통해 선한 삶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다른 구성원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을 들으면서 연약한 자신의 모습과 내적 갈등이 나만 홀로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위로를 받게 된다. 최영기는 이러한 소그룹 나눔을 통하여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제자로 훈련되어진다고 강조한다.[173]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은 말로 가르쳐야 할 때도 있겠지만 소그룹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174] 그러므로 말씀과 삶을 나누는 시간은 소그룹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상처와 아픔, 고난과 어려운 삶의 모습들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얻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나눔은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캇 펙(Morgan Scott Peck)은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정신분석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을

---

[172] Aurelius Augustinus, *De Doctrina Christiana 기독교 교육론*, trans. 김종흡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0), 52-53.

[173]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177.

[174] Ibid.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을 연구한 결과,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강하게 보여지는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나르시시즘(Narcissism)'적인 모습이었다.[175] 그렇다면 나르시시즘이란 무엇인가? 이 말의 유래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물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Narkissos)'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자신의 외모,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자기 자신을 병적으로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한다.[176] 이러한 나르시시즘의 특징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환상 속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나르시시즘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치유의 첫 발을 땔 수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캇 펙은 "인간의 악을 직접 들여다 볼 수 있기 전까지는 치유의 희망을 꿈꿀 수 없다고 주장한다."[177]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러한 나르시시즘의 문화에 깊이 젖어있다. 개인 컴퓨터의 대중화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을 과시하고 포장하면서 자신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과 다르다는 나르시시즘적인 모습들이 신드롬처럼 일어나고 있다.[178] 이러한 사회의 광범위한 문화적 성향과 풍조 속에서 현대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이유로 소그룹 나눔은 피상적이고, 자신을 감추는 소극적인 모임이 되는 것이다.

코헛은 이러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감적 경청'이 필요함을

[175] Morgan Scott Peck, *People of the Lie 거짓의 사람들*, trans. 윤종석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15), 143-44.

[176] 홍이화, "나르시시즘(Narcissism), 지독한 자기(Self) 사랑?," *기독교 사상* vol. 자기 심리학(Self-Psychology)이야기 no. 1 (2010): 271-72.

[177] Morgan Scott Peck, *People of the Lie 거짓의 사람들*, 11.

[178] 홍이화, "나르시시즘(Narcissism), 지독한 자기(Self) 사랑?," 272-73.

강조한다. 공감적 경청이란, 오감을 모두 사용해서 언어적 메시지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까지 포함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피드백을 보내는 적극적 경청을 넘어서는 듣기이다.[179] 다시 말해, 화자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쏟음으로써 화자의 입장에 서서 바탕에 깔려 있는 말의 의미까지도 듣는 공감능력을 말한다.[180] 그런데 이러한 공감적 경청은 나르시시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다. 코헛은 정신분석학적으로 나르시시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객관적 관찰을 통해 해석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우선 그들의 말하려고 하는 것을 공감적으로 경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그들의 내면 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공감적으로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행위였다. "이러한 시도는 그 때까지 분석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왔던 나르시시즘적인 성격장애에 대한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다."[181] 즉 공감적 경청을 통해 나르시시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문제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그룹 나눔에서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한 공감적 경청을 하려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공감적 경청을 위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소그룹 예배에 참여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러한 환대적 분위기 속에서 구성원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의 고백을 공감해 줌으로써 소그룹 예배의 역동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

179 백미숙, "의사소통적-치료적 관점에서 듣기와 공감적 경청의 의미," *한국독일언어문학회* vol. 34 (2006): 44.

180 Ibid.

181 홍이화, "나르시시즘(Narcissism), 지독한 자기(Self) 사랑?," 269.

4. 중보적 기도

소그룹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시간을 가져야 한다. 존 칼빈(John Calvin)에 따르면, "인간은 모든 선에 완전히 결핍하며 구원의 모든 방법에도 결핍하다"고 주장한다.[182] 즉, 우리는 결핍된 인생으로써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에게 개인의 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또한 교회의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한다.[183] 소그룹 예배를 통해 서로 나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고통의 문제들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자신에게만 향해 있던 시선이 확장되어 상대방의 관점으로 그들의 삶을 보게 되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마침내 그들과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다.[184]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소그룹 예배는 환대의 밥상과 감사의 찬송, 공감적 경청 가운데 나누는 말씀과 삶 그리고 중보적 기도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 각 순서마다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과 존중 그리고 환대의 정신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마음과

---

[182] John Calvin, *A Compend of the Institutes of the Cristian Religion 기독교강요선*, trans. 이종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56.

[183] Ibid., 159.

[184] 이인경, "중보기도와 감사," *새가정* no. November (2011): 20.

마음이 만나는 진실된 교제이어야 한다.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교회 출석은 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생명으로 만나는 교제에서 단절된 채 아이들과 함께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어와야만 했다. 교회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향한 인식론적 전환을 통해 이들이 소그룹을 통해 환대를 경험하고 그들이 서로 삶의 무게를 나눠지고 치유 받고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환대 신학적 소그룹을 세워야 한다.

Chapter V

결론 및 제언 (Conclusion and Suggestion)

한국 교회는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의 구조 속에서 여전히 여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억압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공동체의 무관심 속에서 차별 받고 소외 받고 있는 대표적인 부류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분석함으로써 4 개의 범주와 9 개의 주제군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심층 면담 결과를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증하였다. 첫째,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인식론적 폭력아래 자모실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고, 둘째, 차별을 내면화한 여성들로부터 가부장적인 억압을 받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셋째, 공동체 식사나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려 받지 못하고 소외를 경험하고 있고, 넷째, 소그룹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소그룹을 통해 환대 받지 못하고 여전히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나는 교회 공동체가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들을 향한 인식론적 특권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환대 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차별과 억압 속에서 힘들어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교회가 관심과 사랑으로 환대해야 할 타자요, 낯선자들임을 강조하였고, 더불어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교회에서 소외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환대 받음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는 소중한 구성원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나는 실제로 이들을 구체적으로 환대하기 위해 환대신학적 소그룹을 목회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대그룹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무조건적으로 환대하며 모든 필요를 채워 줄 수 없기에 환대신학적 소그룹을 통해 이들을 구체적으로 돕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제적인 환대신학적 소그룹 예배 모델을 제시하였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구조가 얼마나 뿌리 깊이 교회 안에 형성되어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면담하는 과정 가운데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고백하면서도 결코 자신들의 요구사항이나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 같은 사람의 불편함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겠느냐', '그냥 참고 사는 편이 속 편하다'는 고백 속에서 교회의 가부장적 구조가 어떻게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고, 그들 스스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들의 자리와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차별의 내면화가 뿌리 내리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뿌리 깊은 한국 교회의 가부장적인 구조가 이 연구를 통해 획기적으로 변화 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 연구를 통해 소수의 목회자들이라도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교회 안의 가부장적인 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 없이 비판적 저항을 시도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나 자신 또한 남성 중심 구조에 익숙해 져 있었던 사람으로서 교회 안의 차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과정을 통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소외되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그들에 대한 민감성이 생겨나게 되었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목회자로 변화 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전혀 문제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 안의 차별들이 불편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교인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한 사회자가 진행을 하면서 유머를

위해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였다. 예전에는 그냥 웃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 발언이 심각하게 들려졌고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다. 또한 같은 프로그램에서 남성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노출이 심한 여성 복장을 하고 나와 공연을 하였는데 전혀 재미있지 않았고 불쾌감 마저 들었다. 목회자들의 웃음코드가 고작 여성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성차별적 언어와 행동이라는 사실에 씁쓸함을 금치 못하였다. 목회자들부터 남성중심 구조에 익숙해 져 있다 보니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러한 성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이전에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인식되기 시작하니 그 동안 얼마나 내 자신이 무지가운데 살아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러한 페미니즘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니 장소 사용에 있어서도 권력과 차별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주일날이면 장소가 협소하여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모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헤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부류는 언제나 자신들의 넓은 공간이 보장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 공간 안에는 들어 갈 수 없다. 소수의 몇 명만을 위해 넓은 공간이 특권처럼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이러한 공간 사용의 모습 속에서 권력과 차별의 구조가 보이게 된 것이다.

또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부류의 소외된 자들도 보이기 시작하였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탈북민들, 다문화 가정들, 은퇴하신 노인분들 등 여러 부류의 작은 자들이 눈에 들어 오게 되었고 그들을 어떻게 환대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현재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민감하게 찾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을 조금이나마 환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담당자들에게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비록 완벽한 환대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무조건적 환대의 정신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계속적으로 살피는 환대신학적 목양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해 나에게 인식론적 변화가 생겨 났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것이 개인적으로 이 연구의 최대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변화와 민감성이 앞으로의 목회 방향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나는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페미니스트 신학의 관점으로 논증하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환대하기 위한 목회적 대안으로 환대신학적 소그룹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목자(리더)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지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환대신학적 소그룹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목자를 세우기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는 환대신학적 소그룹을 세우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면담 결과를 소개하고 이들이 왜 환대 받아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제공했다는데 이 연구의 독창성과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제시된 환대 신학적 소그룹을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환대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의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연구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환대 신학적 소그룹 사역을 수정, 보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 없이 무조건적 환대의 정신을 가지고 실제적인 환대를 실천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하며, 끊임 없이 연민적 시선을 가지고 환대를 실천하는 시행착오를 겪어가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향한 인식론적 전환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남으로써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환대신학적 소그룹 사역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해 본다.

부록 A: 연구참여동의서(Appendix A: Informed Consent Form)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11) 박사 과정 중에 있는 박강민 목사입니다. 저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소그룹 예배의 중요성에 관한 질적 연구: 환대 신학적 관점으로" 라는 제목하의 연구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교회안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에서 목회상담학과를 담당하시는 이경식 교수님의 지도아래 수행되고 있습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교수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메일 slee@cst.edu 로 연락하시거나 1-***-***-****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신다면, 귀하는 심층 인터뷰에 약 1 시간 가량 참여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진행 과정 동안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고 필사 될 것입니다. 녹음된 모든 내용과 필사본은 논문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고 논문 연구가 끝나면 모두 파기 될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참여에 비용을 지불 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이름, 이메일, 다른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자료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만 보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논문에 귀하의 인터뷰 내용이 기재될 때 귀하의 성함과 개인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기재함으로써 귀하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의 연구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참여 철회는 귀하가

가지고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연구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참여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메일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자 박강민 목사의 전화번호 ***-****-**** 혹은 이메일 kangminpark@me.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 왔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2016-01]입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심사위원회 회장의 연락처인 ***-****-**** 혹은 viastar@hanmail.net 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참여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

연구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문헌

<u>국내도서</u>

강남순. *정의를 위하여: 비판적 저항으로서의 인문학적 성찰.* 서울: 동녘, 2016.

______.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 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______. *페미니스트 신학:여성, 영성, 생명* .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4.

______.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______.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김영천, *질적 연구 방법론 I: Bricoleur*, 2 판.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4.

______.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______. *질적 연구 방법론 IV: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6.

서근원.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시대의 삶과 문화와 교육, 그리고 질적연구.* 파주: 교육 과학사, 2013.

신의진. 나는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서울: 걷는나무, 2012.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도, 1999.

<u>해외도서</u>

Coleman, Robert E..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Michigan: Fleming H. Revell Company, 1993.

Comiskey, Joel. *Home Cell Group Explosion : How Your Small Group Can Grow and Multiply.* Houston: Touch Publications, 1998

McBride, Neal. *How to Lead Small Group.* Colorado Springs: Navpress, 1990.

Neighbour, Ralph Webster. *The shepherd's Guidebook: Spiritual and Practical Foundations for Cell Group Leaders.* Houston, Tex: Touch Outreach Ministries, 1996.

Schwarz, Christian A.. *Natural Church Development : A Guide to Eight Essential Qualities of Healthy Churches.* Carol Stream: ChurchSmart Resources, 1996.

Simson, Wolfgang. *Houses That Change the World: The Return of the House Churches* (Emmelsbull: C&P Publishing, 1999), 84-85.

번역서

Augustinus, Aurelius. *De Doctrina Christiana 기독교 교육론.* Translated by 김종흡.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0.

Beckham, William A.. *The Second Reformation : Reshaping the Church for the Twenty-First Century 제 2 의 종교개혁.* Translated by 터치 코리아 사역팀.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Black, Kathy. *A Healing Homiletic: Preaching and disability 치유 설교학: 설교와 장애.* Translated by 이승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Bonhoeffer, Dietrich. *Eine Dogmatische Untersuchung zur Soziologie der Kirche 성도의 교제.* Translated by 유석성 and 이신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Borradori, Giovanna.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테러시대의 철학: 하버마스, 데리다와의 대화.* Translated by 손철성, 김은주 and 김준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4.

Calvin, John. *A Compend of the Institutes of the Cristian Religion 기독교강요선.* Translated by 이종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Derrida, Jacques. *De l'hospitalite' 환대에 대하여.* Translated by 남수인. 서울: 동문선, 2004.

Kearney, Richard. *Strangers, Gods and Monsters 이방인, 신, 괴물.* Translated by 이지영. 고양: 개마고원, 2004.

King, Nigel and Christine Horrocks.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에서의 인터뷰.* Translated by 김미영, 김윤주, 김려화, 박금주 and 지은주. 서울: 현문사, 2013.

Koenig, Jone. *New Testament Hospitality 환대의 신학.* Ttranslated by 김기영.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2002.

Icenogle, Gareth Weldon. *Biblical Foundation for Small Group Ministry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Translated by 안영권 and 김선일.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출판 유통사업부, 1995.

Peck, Morgan Scott. *People of the Lie 거짓의 사람들.* Translated by 윤종석.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15.

Russell, Letty M.. *Just Hospitality-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공정한 환대-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환영.* Translated by 여금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u>학술지 논문</u>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교회와 목회* vol. 690, no. 6 (August 2014): 234-50.

김나현, 이은주, 곽수영 and 박미라.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여성건강 간호학회지* vol. 19, no. 3 (September 2013): 188-200.

김미진. "노인자살 원인으로서의 소외에 대한 분석과 소외 극복을 위한 기독교 상담."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vol. 25, no. 3 (June 2014): 9-46.

김승호.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일곱 가지의 원리에 대한 고찰." *개혁주의 교회성장학회* vol. 3, no. 2 (2008): 1-38.

강영안. "향유와 거주: 레비나스의 존재 경제론." *문학과 사회* vol. 8, no. 4 (November, 1995): 1522-548.

김애령.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 39 (November 2008): 175-205.

김유준. "아우구스티누스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삼위일체론 비교 연구." *한국교회사학회* vol. 37 (2013): 207-39.

김은정. "환대적 학습환경과 기독교교육." *인문학논총* vol. 33, no. October (2013): 231-48.

김이곤. "약자 보호법, 계약법전." *기독교사상* vol. 32, no. 10 (1988): 188-202.

김주연, 진보래 and 김주환. "생활 만족도와 감사 성향이 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 변인으로." *한국언론학보* vol. 58, no. 4 (August 2014): 238-62.

김진애. "조르지오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수치심 -특수한 시대권력에 따른 분석과 일상생활에서의 고찰 가능성." *철학연구* vol. 51, (2015): 143-72.

김한옥. "한국교회 소그룹 목회의 실태와 발전 방안." *신학과 실천* vol. 43, no.12 (2007): 9-37.

김형민. "공적 교회의 윤리적 책임." *기독교사회윤리* vol. 26, (2013): 83-116.

문용식. "찬양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영성." *신학지남* vol. 70, no. 4 (December 2003): 130-58.

박해정. "은혜의 수단으로써의 예배: 회중의 예배 참여 방안 연구." *신학과 세계*, vol. 68, no. 6 (2010): 213-42.

백미숙. "의사소통적-치료적 관점에서 듣기와 공감적 경청의 의미." *한국독일언어문학회* vol. 34 (2006): 35-55.

손운산. "낯선이를 환대하라." *기독교 사상* vol. 640, no. 4 (2012): 260-70.

송하식 and 김용순. "유리천장에 대한 지각과 이직의도-통제위치의 조절효과-." *산업과 경제* vol.22, no. 1 (August 2009): 253-64.

연은모, 윤해옥 and 최효식.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지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특성의 종단 매개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회* vol. 98, no. May (2016): 1-28.

왕대일. "나그네(게르, גר)-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vol. 113, no. Summer (2001): 101-121.

우진성. “고린도교회의 주의 만찬에 나타난 배고픈 자들과 술취한 자들의 정체.” *성서학 학술세미나* vol. 2008, no.3 (2011): 38-67.

______. “그리스-로마의 심포지움을 통해서 본 예수의 오병이어 이야기- 마가복음 6:30-44 를 중심으로.” 신약논단 vol. 20, no. 1 (2013): 97-128.

이대균 and 황주미. “1 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초보 어머니의 어려움과 기쁨.” *유아교육학회지* vol. 12, no. 5 (2008): 103-32.

이인경. “중보기도와 감사.” *새가정* no. November (2011): 18-21.

이재현, “인간형상과 하나님 형상: 내면적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목회신학적 고찰,” *한국 목회 상담학회* vol. 21 (2013): 191-215.

이종원. “난민과 탈북자의 윤리적 문제-아감벤과 레비나스의 이름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vol. 34 (2016): 103-38.

이후정. “이웃 사랑과 환대의 영성.” *기독교 사상* vol. 674, no. 2 (2015): 206-14.

전정희 and 한재희. “자기소외를 경험하는 목회자 아내의 심리사회적 현상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vol.23, no. 1 (2012): 159-86.

정경호.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환대의 밥상.” *기독교사상* vol. 657, no. 9 (2013): 80-91.

정윤길. “스피박의 서발턴 이론과 소통의 문제.” *인문과학연구*, vol. 37, (September 2011), 219-34.

정은주 and 이미선.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 어려움과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부부의사 소통과 부부 역할 만족도의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8, no. 4 (2013): 485-510.

정재영. “소그룹을 통한 교회 공동체의 실현.” *교회와 사회* vol. 55, no. 606 (2008): 54-57.

정희수.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의 구스타보 구티에레즈와 아시아 해방신학의 알로이시우스 피에리스 비교-가난의 문제와 영성을 중심으로.” *세계의 신학* vol. 6 (1990): 240-58.

조계표. “맞벌이 부부의 조부모 자녀양육의 문제점과 제언.” *한국영유아보육학회* vol. 84, (January 2014): 283-99.

진주영. “호모 사케르의 윤리: 창래 리의 제스처 라이프와 항복한 자 연구.” *미국 소설* vol. 20, no. 2 (2013): 31-54.

차정식. “역동적 삼각관계와 공동체의 윤리-빌레몬서와 요한삼서를 중심으로.” *신약논단* vol. 19, no. 2 (2012): 593-623.

최순양. “트린 민하(Trinh T. Minh-ha)와 스피박(Gayatry Chakravorty Spivak)을 통해 본 탈식민지적 여성이해.” *여성신학논집*, vol. 9, (2010): 31-60.

홍이화. “나르시시즘(Narcissism), 지독한 자기(Self) 사랑?.” *기독교 사상* vol. 자기 심리학(Self-Psychology)이야기 no. 1 (2010): 266-78.

홍정수. “소그룹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1).” *세계의 신학* vol. 34 no. February (1997): 98-105.

<u>Website</u>

이승규. “교단 총회 여성 참여 봉쇄등 아쉬움 남아.” *CBS 노컷뉴스*, October 6, 2015. http://www.nocutnews.co.kr/news/4484482#csidx16D3Nv (Accessed June. 21, 2016).